

변호인 (ver6)

1. 부산구치소 복도/ 낮

복도를 빠르게 걷는 유니폼 하의와 구두 보인다. 그러다 우뚝 서는 유니폼. 교도관이다.

교도관 33번 노우현 검찰송치

그러자 하얀 사복 수의를 입고 원편 가슴에 33번 번호표를 달고 책을 읽고 있던 노우현, 좁은 구치소 복방에서 일어선다. 교도관 문을 열어주고 노우현 좁은 방을 나와 교도관과 같이 구치소 복도를 걷는다.

교도관 주위 눈치를 살피다가 우현에게 귀엣말 하듯 솔직 일려준다.

교도관 직선제 받아들인답니다. 위대한 양보니 구국의 결단이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밖으로 나온 우현과 교도관, 검찰청 차량 한 대가 대기중이다. 우현 차안으로 들어가려다 같이 걸어온 교도관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우현 양보는... 아니지요. 그거 하나 하자고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은 피 흘렸습니까?
작으나마 우리 권리를 되찾아 온 거지요.

그렇게 말하며 차안으로 들어가는 우현. 차는 출발하고 얼은 미소와 갔다오겠다는 인사를 건네는 우현.

2. 검찰조사실

우현과 탁자를 사이에 놓고 검시가 앉아있다. 한쪽 벽 쪽에 참여계장이 타이프라이터 앞에 두고 조서 꾸미고 있고 검시는 수사기록을 주욱 훑어보며 질문을 던지고 참여계장이 질문과 답변을 타이핑하고 있다.

검사 작년 8월 10일 부산 중부교회 인근에서 '성고문 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선창하며

불법 가두시위를 전개한 사실이 있죠?

우현 (차분하게) 대답하지 않겠소.

검사 김광삼, 문재호 변호사 등과 함께 3백만 원을 각출해 당감성당 안의 부민협 사무실을
부산진구 범천1동 845 번지 건물로 이전토록 자금 지원한 사실이 있죠?

우현 (의아) 그런 것도 문제가 되오.

검사 그 부민협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제야단체, 신민당 등과 회합을 가지고 (서류 넘기며)

박종철군 추모행사를 기획했죠? 행사가 저지될 경우 집회와 시위도 불사한다는 등의 결의도 했구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우현 그런 이거지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소.

검사 (예상했다는 듯) 박종철군 추모 행사에 쓰이는 유인물, 플래카드, 어깨띠 등 제작 경비 50만원도 피의자가 제공했죠?

우현 대답하지 않겠소. 하지만... (파식 웃음 나온다) 그건 어찌 알았소? 정말 귀신 같네.

검사 피의자가 당일 행사 추도연설도 준비하고 직접 연설도 했지요?

우현 미리 준비했다면... 좀 더 잘했겠지요.

검사 답답한 듯 88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다. 우현앞으로 담배와 빈 재떨이 내밀어보지만 우현 고개를 가로젓는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검사가 뱉는 담배 연기로 방안이 자욱하다. 검사,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는데 재떨이에는 담배 꼬초 수북하다.

검사 (정적) 노변호사님. 이건 법무부 공무원이 아니라 제 개인적 질문입니다. 인권변호사로 노변호사님 얘긴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박종철군 사건의 성격, 부산이 박종철군 고향이라는 사실, 부산 시민의 기질 등을 바춰볼 때... 박종철군 추도회는 인천 사태같은 극도의 혼란 상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현 추도회는 원래 고인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본질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거지요. 불안을 느꼈다면 그런 추도회조차 두려워 평화적인 추도회로 끝날 수 없도록 폭력전압한 자들의 불안일 뿐이라고 생각하진 않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오. 법무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검사 아무리 그렇다 해도 법조인의 견지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현 오히려 법조인기에... 법률적 방법으로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할 방법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선 맨 앞에 서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오.

검사 (졌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래 변호만 하다가... 아니 판사로 판결까지 내리시던 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기 앉아 조사받는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우현 (확신에 차서 또박또박) 결국! 반드시!! 이번 일은... 기억할만한 추억이 될 겁니다.

음악 흐르며 영화 타이틀 뜬다.

변호인

3. 약국/ 낫

자막 : 1978년

약사 비닐 봉지에 박카스 한 박스를 담아 내밀다. 그 비닐 봉지 들고 약국문 나서는 누군가의 모습

4. 김광삼 변호사 사무실 건물/ 낮

어느 빌딩 계단을 박카스 한박스 들판 오르고 있는 누군가. 4층에 도달하자 “김광삼 변호사 사무실” 이런 간판 보인다. 사무실 문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는 누군가. 노우현이다. 얼굴 근육 움직이며 표정 운동하더니 문 벌컥 열고 들어선다

5. 김광삼 변호사 사무실

우현	(약간 오버톤의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김광삼	(사무실 중앙의 소파에 앉아 얘기중이다가) 얼레? 연락도 없이 웬일이고?
우현	(일부러 능청) 자나가다 들렸지요.

우현 사무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다가 김광삼 맞은편에 앉아있던 손님 발견한다.

우현	아... 나중에 올까요?
김광삼	아이다. 들어와라. (애기 나누던 손님에게) 인사해라. 노우현이라꼬 대전지법 판사로 있다. 연수원 다닐 때 시보로 여서 3개월쯤 있었다. (우현보고) 여는 이상록 변호사. 내랑 부산양서조합일도 하고 이런 저런 일 같이 하고 있다.
우현	(고개 숙이며) 노우현이라갑니다.
이상록	이상록이요. (우현과 악수하고 문쪽으로 나가며 김광삼에게) 그럼 그렇게 하께.
김광삼	갈라꼬?
이상록	(나가다 멈추며) 밥 사주믄 있고.
김광삼	(손사래로) 가라. (우현보고) 나는 많고. (일어서서 직접 커피 탄다) 판사질 재밌나?
우현	(입으며) 재미없는데. 그래서 때려쳤습니다.

커피 타다가 깜짝 놀라 쳐다보는 김광삼.

김광삼 (끓는 물 컵에 봇다 놀랜다) 앗 뜨기. 나 임용되고 반년도 안되지 않았나?
우현 7개월됐심더.
김광삼 그게 그거지. (탁자쪽으로 와 커피 주며) 나 임용될 때 텔레비전 뉴스도 나고 유명해져

서 제 있을 줄 알았더니...

우현 (씁쓸한 표정) 고줄이 판사됐네. 개천에서 용났네. 했던 그 뉴스요. 그게 저 야지 주는 거 아입니까? 저 돈이나 빌려구요. 돈버는 데야 고줄이면 어떻고 중줄이면 어떻겠습니까?
김광삼 돈이라... (박카스 박스 열어 하나 꺼내 마시며) 겨우 2개월 해가고 전관예우나 받겠나?
우현 전관예우요? (파식)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급진지해자며) 선배님. 저도 여 부산 내려 와서 사무실 내려구요. (비밀 알려주듯 김광삼에게 가깝게 불으며) 지한테 대박 아이템 이 하나 있습니더.
김광삼 대박 아이템?
우현 예. 대박 아이템요. 그런데요. 선배님.
김광삼 와?
우현 (당당하다 못해 약간 뻔뻔하게) 그러면 사무실을 내야되는데... 저 거지잖아요. 선배님 저 돈 좀 꿔주이소.

벙~ 찌는 김광삼의 표정, 하지만 반짝 반짝 의욕에 빛나는 우현의 눈빛.

6. 변호사 개업 몽타주

-인쇄소-

인쇄소 주인 '부동산등기, 이제 전문 변호사에게 받으세요'이라는 굵은 글씨가 박힌 명함을 우현에게 보여 준다. 우현 뒷면을 보면 '부동산 등기 전문 변호사 노우현'라고 적혀있다.

-부산 등기소-

부산 등기소 정문 앞에서 민원인들에게 직접 영업 뛰고 있는 우현. 등기소 경비원이 잡상인인 줄 알고 쫓아내려다 우현에게 명함을 받아드는데- 쓰고 있던 안경을 고쳐 쓰는 경비원. 명함 나눠주고 있는 우현을 의아하게 쳐다본다.

7. 김광삼 변호사 사무실

우현 부동산 등갑말입니다.
김광삼 (보는)
우현 그 부동산 등기서류 사법서사들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진을 끌내 줍니다. 변호사들 변론 준비하느라 법원 수십 번 들락거릴 동안, 사법서사들은 등기 도장 몇 번 찍어주면서 그 돈 다 범니다.

우현, 빛이 반짝반짝 나는 눈빛과 표정으로 김광삼 설득중

김광삼 부동산 등기를? 변호사가? 그래도 되나?
우현 그게 포인트입니다.
김광삼 (보는)
우현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부동산업무가 급증해가 기존 사법서사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인고?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업무권한을 줬어예. 그길 아는 변호사들이 별로 없고 안다 해도 뛰어들 생각 자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나?
김광삼 ?
우현 자 세무 신고도 못해 사법서사한테 맡기는데 무신 등기를 펜단 말입니까? 서울은 지금 마 부동산 땀에 난리도 아니라예. 어 부산도 이제 부동산 광품이 밀어닥칠거라예.

8. 시내 유흥가/ 밤

흥청거리는 해운대 유흥가. 등기소에서처럼 취객들을 붙잡고 일일이 명함을 돌린다.
그때, 등 뒤에서 들리는 험악한 목소리. 빠끼 1,2 다

빠끼 1 (우현의 멱살을 잡더니) 이 자슥이. 어서 짜라실 돌리노? 니 어데 나이트야?
우현 (컥컥 숨이 막히지만 명함 건네며) 변호사 노우현이라고 합니다.
빠끼 1 (얼떨결에 명함 받으며) 벼... 변호사?

우현 멱살 놓이자

우현 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조기 모퉁이만 돌아 보이소. (명함주며) 자요. 자. 집
사고 빌딩 살 펜 노우현입니다.

우현 서둘러 인사하고 빠지자

빠끼 3 (응원하려 달려왔다가 그냥 가자 우현 뒷등을 아리면서) 점 마 어디라까노?
빠끼 2 변호사란다.
빠끼 3 벼노사?
빠끼 2 (명함 찬찬히 읽으며) 부동산 등기 전문 벼노사. 노우현이. 참 니 집 산다 안했나?
빠끼 3 (잉? 하는 표정으로) 내가 돈이 어딨노? 상무님이 살 거라 가던데... (명함 받아
불빛에 비춰본다)

9. 우현의 사무실/ 오후

꽤 증시게 초침이 들릴 정도로 조용한 사무실. 시간은 2시 15분이다. 우현 신문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간절한 표정으로 전화기와 문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우현 (수화기 들며) 여보세요.

(수경) 접니다.

우현 (실망하는) 당신이가?

(수경) 점심은 먹었어요?

우현 뭐었다.

(수경) 아직 그런가 봅니다? 광고 효과가 어디 바로 나옵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린다.

우현 전화 끊자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중국집 배달부다. 우현 실망하는 표정.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집 배달부는 익숙한 듯 조그마한 테이블 위에 자장면 꺼내놓는다. 근데 단무지 없이 철기방 달는다.

우현	(보던 신문지 깔다가) 단무지는?
배달부	(앗! 싶지만) 웬래 한 개는 배달 안하는데... 오잖아요.
우현	(할 수 없다) 담에는 까먹지 마라.
배달부	(뒤 안돌아보고 나가며) 예~ 맛있게 드이소~

배달부 나가는 동시에 현관문 두드리며 누군가 들어온다. 앞에서 본 빼끼30이다. '여기 맞나?' 하는 표정으로 우현이 뿌렸던 명함 들어 보인다. 우현 자장면 먹던 채로 일어서는데 뒤따라오는 돈 좀 있어 보이는 사자님 꼬스 아저씨 들어오자 재빨리 입 닦으며 손님 맞는다.

10 부산 고급 중국식당/ 저녁

잘차린 양복입은 중후한 표정의 남자(박병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남자가 들어가는 곳은 호텔 중식당. 중식당 입구엔 부산지역 번호사 모임이라고 써여있다. 남자 앞에 서 있는 여종업원에게 그 모임 손가락 가리키고 여종업원 꾸벅 90도로 인사하고 남자를 중식당 안쪽 텈으로 모신다.

남자 룸에 들어가자 변호시들 중국식 원탁테이블위에 요리 시켜놓고 먹고 있다가 아는척 하며 인사간낸다.

번호사 1 박변호사님 오셨습니까?
번호사 2 (뒤돌아 확인하고 반갑다는 듯) 아~ 박변 늦었네.
박변호사 사건이 좀 늦게 끝나서...

변호사 3 여 앉으소.
박변호사 뷔에 까지 웃음소리 들리던데 네 웃담화 한 거 아입니까?
변호사 2 나는 벌써 했고 판 놈아 하구 있다.
박변호사 누구요?
변호사 2 너도 그 소식 들었나? 지 변호사라고 누가 짜라시 뿌리고 다닌대매.
변호사 4 나는 소식이 늦더라. 노우현이라고 두어 달쯤 전에 개업한 놈이 그런단다.
변호사 5 나이트 웨이터들이랑 같이 짜라시 뿌리면서 우리 부산 변호사 쪽은 그 돌아이가 다
풀고 다닌댄다.
변호사 2 누가 말려야지. 그걸 그리 두면 우짜노? 글마 대학 어디 나왔는데?
변호사 5 고졸이라카대. 그 TV에도 나왔다가던대.
변호사 3 대학도 못간 놈이 변호사라꼬?
변호사 4 대학도 웃가고 법을 갈바닥에서 배워가 빠끼 맨치로 명함 돌리는 거 이이기?
박변호사 길에서 배웠든 대학에서 배웠든 돈은 억수로 잘번다고 그러던데요.
변호사 2 누가 그려드노? 그 마땅 박변이랑 아는 사이고?
박변호사 (누군가 들어오자 일어서서 인사한다) 형님 오셨습니까?
김광삼 미안합니다. 늦었네.
박변호사 (변호사2에게) 김 변호사님이 잘 아신답니다. 얼마전에 사무장도 소개시켰주셨다
하시던데요.

11. 우현의 사무실/ 오후

도장 찍고 서류작성하고 정신없이 일하는 우현. 카메라 빠지면 우현 사무실안에서 부동산 등기서류 보며
기다리는 고객들 십여명이 사무실 소파랑 간이의자도 모자라서 일부는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때 사람들 틈을 비집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한 남자. 남자 손님 많아 놀라며 우현 앞에 선다.

우현 (고개도 못들고 서류 작성하며) 죄송합니다만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배동화 저 김광삼 변호사님 소개로 온 배동화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올까요?

우현 그제서야 고개 들어 그를 보곤...

우현 아 그렇십니까? 반갑십니다.

- cut to 시간경과

다방 레지 둘이 한꺼번에 커피 배달 와서 한 명은 기다리는 손님들한테도 돌리고 있고 한명은 우현과 사무
장에게 커피 따라주고 있다.

우현	마. 제가 성격이 좀 직설적이어서 돌려 말하고 그런 거 못하거든요. 저랑 일 안하실겁니까?
사무장	일반 형사 사건 수임은 안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우현	세상 돈이 부동산으로 다 안몰립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등기 업무로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일은 계속 몰리구요.
사무장	(우현 시선따라 다시 휙휙 둘러보다가) 이 정도면 사법서사들이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우현	안 그래도 항의 전화 몇 통 받았지요. 지금 일하는 사무실에서 연봉 300 받는다자에? 600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두 배요? (얼굴에 화색이 돌며) 두배로 뭐란 말이지예?
우현	네 배 뭉다는 각오로 해주셔야 합니다. 글고 저보다 연배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편하게 노변이라 불러주세요.
사무장	(눈치) 그래도 고용주신데...
우현	자는 월급 준다꼬 같이 일하는 사람 하인처럼 부리는 거는 체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위낙 없고 낮게 살아가 존대 받는 게 젤루 불편하구요. 말 높이시면 해고할 거라예.
사무장	(웃으며) 알겠습니다. (우현이 쳐다보자 정색하며) 아. 알겠네.
우현	그럼 당장 일 시작할까요?
사무장	하~ 내도 급한 성격인데... 우리 변호사님 성격도 정말 장난 아이시네요. (그리다 우현과 눈 마주치자 바로 말 고친다) 장난이 아니군~
우현	(손 내밀며) 자가 성질도 급하고 다향질입니다. 막 나간다 싶으면 사무장님아 브레고 좀 걸어 주시구요.

- 인서트

정신없이 일하는 우현과 사무장. 우현 서류 채우고 도장찍고 있고 사무장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작성해야 할 것들 알려주며 고객 관리중이다. 다방 레지들도 열심히 커피 돌리며 고객 관리 도와주고 있다. 우현 수임료 협금으로 받으면 맨앞 서랍에 넣는데 사무장 아무렇게도 막 쌓인 그 돈에 놀란다.

12. 우현의 집/ 밤

수경 문을 열자 마자 장사꾼들이 쓰는 큼지막한 돈 전대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후다닥 들어오는 우현.

우현 (화장실 문 열고 오줌 소리 요란하게 일 보며) 오늘은 진짜 얼마나 바쁜지 쉬 할 시간
도 없어 오줌보 터지는 줄 알았다. (귀엽게 거만) 오늘은 얼마 벌었는지 좀 세봐라.

수경 그 전대를 풀어 정하자 안에 가득 찬 지폐. 꺼내 보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마구 뒤섞여 있다.

수경 돈 받을 때 정리 좀 하면서 받지. 이 뭐예요?

수경 만원짜리, 오천원짜리, 천원짜리, 오백원 짜리들이 무더기로 미구 영커 있는 지폐를 하나하나 분류해 가 정리해나간다. 우현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방에선 예닐곱살 된 건우가 눈 비비며 나온다.

건우 (자다 갠 눈이지만 우현에게 다가와 우현의 다리를 덥썩 안는다) 아빠~ 음나...
우현 우리 건우 아직까지 안잤나?
주경 (돈 분류해서 놓으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 들었는데 당신 오는 소리에 깜나보네요.

건우 우현의 다리를 부여잡은 채 선잠에 들어있다. 우현 건우를 조심스레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재우려는데 천장에서 부다부다닥 하는 쥐 뛰어다니는 소리 들리고 그 소리에 우현에게 안긴 건우 살풋 깬다.

건우	(하품하며) 아빠~ 쥐.
우현	건우 자연 아빠가 다 잡으께. 건우는 코 자자~ (건우 안고 방에 들어가 눕혀놓는다. 옆에선 네 살짜리 딸 연우가 점들어 있다. 우현 건우와 연우 이불 덮어주고 세상 모르고 자는 순진한 두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거실로 나오며다가 천장보며) 아파트는 쥐 없겠지. 여보야.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까?

13. 해운대 아파트/ 오전

탁 트인 해운대가 보이는 아파트 단지. 아파트를 올려다보던 우현.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을 누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우현 어느 집 앞으로 성큼 성큼 가서 초인종을 누른다. 그러자 집에서 30대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온다. 그리곤 '누구시더라' 하는 표정으로 우현을 바라본다. 그러자 명함부터 불쑥 들이미는 우현.

집주인 (명함 보며) 부동산 등기 전문 변호사? 변호사가 무신 일이신데요?
우현 저 긴히 할 얘기가 있는데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오는 우현,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해운대 앞바다가 시원하게 들어온다.

우현	증말 집 좋지요. 앞에 가리는 것도 없고, 바다 보이는 정남향에... (벽을 땅땅 치며) 글조도 딴딴하고, 누가 지었는지 침말로 아무자개 지었습니다.
집주인	(우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본다) 할 얘기가?
우현	저... 이 집 얼마드리면 파시겠습니까?
집주인	예? 아! 집 잘못 찾아왔네요. 여기가 아니고 요밀에 9층이 집 내놨어요.
우현	아뇨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이 집을 사고 싶어서요.
집주인	(기가 막히다) 여보세요. 우린 집 안내놨어요. 밑에 집이 내놨다니까요.
우현	2천 5백! 밑에 집 2천에 내놨더라고요. 5백이나 더 드리는 겁니다.

집주인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집을 끌라니...
우현 2천 6백만원 드리죠. 첨 분양받을 때 천 삼백에 사셨죠. 첨 사셨던 금액의 두 배 맞춰드릴게요. (집주인 계산증인 표정보고) 밀엇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6백 버시는 겁니다.
집주인 (우현이 너무 멀어붙이자 페이스 말린다) 일단 앉으이소. 커피 타오께에

그러며 부엌으로 향하는 집주인, 우현에게서 몸을 돌리자 입가에 미소가 쓰윽 지어진다. 그 사이 우현 열린 베란다에 나아가서 해운대 앞바다 바라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커피 건네며 묻는다. 나긋나긋해진 목소리다.

집주인 근데... 꼭 이 집 사서야 하는 이유가 있능가 봅니다? 변호사님.

14. 해운대 아파트/ 오전

집이 다 빠져 험한 집안. 집에 들어온 우현과 수경. 건우와 연우도 같이 와서 뿔뿔이 돌아다니고 수경은 방이며 욕실 구경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우현은 베란다 앞에 서서 천정과 베란다 벽 맞닿은 곳에 멈춘다.

우현 여보. 벽지 새로 할 거지?
수경 (방쪽에서 소리만)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그러자 우현 갑자기 벽지를 거침없이 북북 뜯어내는데. 시멘트벽에 선명하게 새겨져있는 글귀 보인다.

포기하지말자. 절대로 포기하지말자

그 글귀를 바라보고 있는 우현 뒤에서 글자 읽는 소리가 들린다.

건우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우현 뒤돌아보자 건우가 멀뚱하게 벽에 새겨진 글씨를 보고 있다. 연우도 뒤따라와 오빠 건우가 보는 글씨를 본다. 하지만 건우처럼 글씨를 읽지는 못한다.

연우 오빠 저게 뭐야?
건우 (글 읽는 걸 빠기듯)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우현 그런 건우 눈높이로 무릎을 긁하고 앉는다. 그리고 얇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우현 우리 건우 태어난 날. 아빠가 여기에 새긴 글이야.
건우 내 생일날? 뭘 포기하지 마는데?

수경도 거실로 와있다. 수경 우현의 글씨체를 알아본다. 우현 그런 수경 올려다 보고 다시 건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건우가 태어난 그 날로 돌아간다.

15. (과거) 해운대 아파트 건설 현장

'판자촌 개발하여 향토부산 건설하자.' '판자집 없애고 아파트에서 잘살아보자.' 등등
현수막이 나부끼는 아파트 공사장. 10층 공사현장안에서 인부들 새참시간에 끓인 라면 받아먹고 있다.

인부1 노씨는 어디갔나?

인부2 (후루룩 라면 마시며) 집에 전화한다꼬 저 가는 거 같던데. (탁짓으로 현장사무소)

현장 사무소안의 중년의 여자에게 꾸벅 인사하는 우현,

우현 저... 전화 한통화만 해도 되겠습니까? 공중 전화가 너무 멀어가...

중년여 (잠시 주저하다가 안심쓰듯) 장기리는 안되예.

우현 시냅니다. 짧게 할게요.

현장 사무소안 여자 고갯짓 하자 우현 전화기를 돌린다.

우현 아지매요? 예 제 처 좀 바꿔주이소. (깜짝 놀라며) 예? 머리고요? 암수가 터져요?
(당황하며) 어데로 갔다구요? 예 예 일겠심더...

전화 끊은 우현 잠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한다. 사무소 여자

여자 부인이 예 날아요? (아버지가 노가다 뛰는데 애는 어찌나? 하는 표정)

우현 예. 암순가 터져서 산부인과 갔다꼬... (그러다 여자 얼굴 뚫어지게 바라본다)

저...죄송한대요. 택시비 좀 꿔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빨리 가야되서... 꼭 갚을게요.

우현 공사장 밖으로 뛰어나온다. 그리고 거리를 마구 달린다. 포니 택시가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넓다 달리 기만 한다. 달리는 그의 표정이 숨이 차서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16. (과거) 부산 제일 산부인과

원무과앞 로비

숨이 턱밑까지 차올라 산부인과 안으로 뛰어 들어온 우현. 손에 든 비닐 봉지로 뼈죽 나와있는 건 건미역 다발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현 수경 이름 적힌 입원실 찾는데... 한 산모가 자신을 보고 피해 돌아가는 걸 본 우현. 자신을 돌아보자 옷은 여기저기 해져있고 먼지 투성이에 땀 투성이다.

화장실

거울에 비추인 자신을 보는 우현. 세수를 하고 옷도 털고 옷에 묻은 먼지는 부분 물빨래로라도 지워본다. 그렇게 최대한 매무새를 만진다. 그러곤 다시 거울을 보지만 우현의 얼굴, 자괴감으로 가득하다.

입원실

우현 쭈뼛쭈뼛 6인 입원실 안으로 들어간다. 아내 수경 누워있고 장모님 와 있다. 장모님이 우현 보더니 다 가온다.

장모 공부는 잘되가나? (낮은 목소리로) 병원비는 내 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현 자신의 무능과 출산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머쓱함에 고개 푹 숙여 인사하곤... 건미역 다발 든 비닐 건넨다. 장모 받아 나가고 우현 수경에게 다가간다. 다가가자 수경이 젖먹이고 있는 아가가 눈에 들어온다.

수경 우리 아가 너무 이쁘죠?

수경 우현이 다가오자 젖무덤 닫으며 아기를 우현쪽으로 돌린다. 차마 안지는 못하고 꼬물꼬물하는 아기를 가까이 바라보기만 하는 우현. 보다못한 수경이 우현의 손을 잡아 아가에게 가까이 하지만 우현은 손이 더 러워서인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러자 아가가 먼저 우현의 손가락 끝을 작디작은 손으로 잡는다.

수경 애가 성질이 급해가... 당신 공부하다 놀랬겠어요? (그려며 우현 바라본다)

우현 그 시선에 부담느껴 눈길을 피한다.

17. (과거) 해운대 아파트 건설 현장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텅 빈 공사장. 야간 공사가 한참이다. 우현 시멘트대를 짊어지고 공사장 올라다니다 야간 새참 시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 들린다. 한쪽은 뺨을 배식종이고 다른 한쪽에선 소주병이 따지고 있다. 우현 뺨 하나를 받고 소주 쪽으로 간다. 술따라주는 인부1 아까 우현의 안부묻던 인부다.

인부1 (보니 우현이다) 애 아부지 됐대매?

우현 그렇게 됐어요. 하는 표정으로 고개 끄덕이자 인부1 사이다잔에 소주를 반잔쯤 따리준다. 그리고 옆에 쌓여있는 계란판에서 날달걀 하나를 집어 사이다 잔 안에 깨놓는다. 서서히 가라앉는 날달걀.

우현 주저없이 단숨에 마신다. 빵 한덩이와 소주 한잔씩 먹은 인부들 다시 공시장 안으로 사라져 들어가고 윤현 뼈운 죽머니에 쓰서 넣고 시에 푸대를 등에 짓다.

공사장 안에서는 미장일 하려 시멘과 모레 섞은 통이 한가운데 있고 우현은 미장 보조로 물에 시멘을 펴다 날라준다. 미작사가 곧게 아파트 내벽을 미장한다.

cut to 시기결과

이 브로드 불꺼지 공사자 밖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는 데 공사장 한 곳에 불이 켜진다.

[out to 고시주의 아파트아](#)

천장에 임시로 설치한 전구 불빛에 드러나는 우현의 얼굴. 우현은 아까 받은 빵봉지를 들고 있다. 한쪽에 앉아 빵과 소주 남아있는 소주병을 가져와 마시는 우현. 어국어국 마른 빵을 먹다가 사래 들린 듯 기침한다. 소주로 목을 축여 기침을 멈추고 기만히 있는 우현. 호흡을 기다듬으며 베란다 공사장 밖을 내다본다. 시커먼 해운대 바다가 보인다. 일어서서 베란다로 나가는 우현.

베란다 끝에 서본다. 창살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날 것의 베란다 위에 서 있는 우현. 남은 소주를 다 마셔버리고 우현 밑을 바라본다. 누가 보면 자살이라도 할 사람 같은 포즈다. 그러던 우현 소주병을 있는 허깨 털비 곰죽으로 던진다. 잠그락 벽 깨지는 소리 들리고... 우현은 숨을 몰아 내쉰다.

그런 우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가 싶더니 어금니 꽉 깨운 우현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두리번거리던 우현 대못 하나를 주워든다. 그리곤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촉촉한 베란다로 나가는 시멘트벽에 그림자를 새긴다. 카메라 모을 쪽아가며 벽을 훑자 우현이 새긴 문구가 보인다.

포기하지마자 절대로 포기하지마자

18 (과거) 부산 현책방 골목/ 새벽

아저씨 한명이 현해방 열려고 자신의 조그마한 가게 앞으로 온다. 가게 앞에 웬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다가 아저씨 가게문을 여는 걸 듣는다. 아저씨 누군가 보는데 낮이 익다. 대충 문을 열었나 싶은데 그 낮익은 남자

우현 제가 판 책 있잖아요. 그 사시공부하던 책이요. 안풀렸지요? (그리며 꾸깃꾸깃 천원짜리
연자 네마다)

19. (현재) 해운대 아파트/ 오피스텔

천진하게 4살짜리 연우가 우현에게 묻고 있다. 우현 빙긋이 웃으며 건우와 연우를 안다는, 그리곤 번쩍 들었을 때다. 나아가다. 과거의 어두운 밤바다가 아닌 푸른 하늘과 바다가 널실대는 멋있는 해운대 경관이

펼쳐져 있다.

우현 건우야. 연우야. 이 아파트 아빠가 지은 거다.
연우 정말?
건우 우와. 아빠가 이 빌딩 지었다고? (존경의 눈으로 우현 본다)
우현 (멀리 바다 쳐다보며) 그럼. 아빠가 한 장 한 장 벽돌 올리고 세멘 발라가 지었지.
 우리 건우랑 연우랑 같이 살려구.

그 모습을 거실에서 바라보는 수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듯 포기하지말자. 절대로 포기하지말자 고 대못으로 휙갈겨 쓴 글씨 옮려다본다. 그러던 중 우현이 뭔가 생각난 듯 뒤돌아보며 얘기한다.

우현 우리 저녁 돼지국밥 먹으까?
수경 돼지국밥이요?
우현 옛날에 이 아파트 지을 때 내 신세만 지고 못갚은 집이 있다. 저녁은 거 가서 먹자.

20. 진우네 국밥집/ 저녁

테이블 열 개 정도 있는 아담한 돼지 국밥집. 손님들로 2/3 쯤 차 있다. 벽에 붙은 주문표는 돼지국밥, 수육, 순대뿐이다. 주방 안의 순애, 가마솥 뚜껑을 열고 뜨거운 김이 얼굴에 뒤집어 쓰고 펄펄 끓는 물속에 서 돼지고기와 내장 등 고집어내는데...
주방에 얼굴 들이미는 진우(17). 깊고 선한 눈빛. 고등학교 교복(하복) 입고 바짝 깎은 머리로 엄마 일하는 걸 구김살 하나 없이 듣고 있는 아이다.

진우 아무아. 국밥 네 개에 수육 하나 달립니다.
순애 알았대아. 쪼기서 시킨 국밥 두 개다. 요개 코기만 들어간기고 요개 비게 많은 거다.

진우 능숙하게 뜨거운 뚝배기 두 개를 테이블로 옮긴다. 여자와 남자 손님 앞에 각기 다른 국밥 놓아준다.

진우 고기만 듣거요. 요개 비게 많이 넣어달라 한거구요.

그때 딸랑- 종소리 나고 안으로 들어서는 우현과 수경, 건우와 연우도 들어온다 인사하는 진우.

진우 어서 오세요. 여 않으이소.

진우 엽차 든 양은 주전자와 컵들 갖다 주며 우현 앞에 선다. 우현 뭔지 지은 죄(?)가 있어 살짝 긴장해있다. 진우 빤히 쳐다보는데...

진우	뭐 드릴까에?
우현	(그제서야) 아... 수육하고 순대도 하나 주고 국밥 네 개 주라.
수경	(놀라서 말리며) 그걸 우째 다둑어요. 국밥 세 개만 주이소.
진우	애들하고 사모님간 비계 빼까에?
수경	예 그래 주이소

진우 주방으로 달려가 '국밥 세 개요. 두개는 비계 없이요' 외치자 주방안에서 '옹~야' 하는 소리 들린다.

수경	(진우 바라보며) 학생이 잠 참하네요.
우현	(야속한 듯 수경에게) 내 아집에 빚있다. 안했나?
수경	(뭔소리가 싫다) 빚이요? 신세 졌다는 게 빚이에요?
우현	(주변 눈치 살피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옛날에 여기에 달아놓고 밥 묵다가 내 돈 못내고 튀었다.
수경	(그제야 우현의 이상행동이 이해되는 듯) 학생 어기 순대랑 수육 주이소.
우현	소주도 하나 주고... 나들은 환타 주까? 어 환타도 주소.

테이블 닦던 진우, 해맑게 웃으며 "예~"라고 대답하더니 주방에 다시 고개 들이밀고 "수육 하나 순대 하나요" 외치곤 냉장고에서 소주와 환타 꺼내온다.

cut to 시간 경과

수경은 진우와 연우에게 호호 불어 국밥 식혀 먹이느라 바쁘고 우현은 밥은 다 먹고 TV 드라마 보고 있는 진우와 아지매 눈치보고 있다. 진우 그런 우현 눈길 느끼고

진우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우현	(뜨끔) 아이다. 근데 나 내 기억 안나노?
진우	(빤히 쳐다보다가 웃으며 고개 흔든다) 제가 저녁에만 도와드리다보니까... 잘
우현	(진우의 명찰 보더니) 박진우? 부산고등학교 다니나 보네? 1학년인가?
진우	예! 단골이셨나 봐요?

순애 진우와 우현 대화듣다가 슬쩍 와서 우현 쳐다본다. 근데 모르겠다는 눈치다.

우현	아지매요. 내 기억 안나십니까?
순애	(오히려 미안한 듯 웃으며) 미안하네. 요즘 내 좀 가물가물해서.
우현	(일어서며) 내 어서 밥 묵고 도망간 놈인데요... 한 7년 전에...
순애	7년전?... 7년전?

진우 슬쩍 다시 와서 우현을 자세히 뚫어지게 본다.

진우	(그러다 생각났다) 아! 그 법 공부하던 아저씨. 한달이나 공밥 먹고 뭉쳤다고 엄마가 속상해했잖아.
건우	엄마 뭉겨먹는 게 뭐야?
수경	(민망...연우 알고 알아서며) 여보 난 애들 데리고 바람 좀 쐬께요. 나가자.
건우	응.
순애	(노안때문에 쟁그리며 우현 보다가 기억나는 듯) 나? 참말로? 고시 공부한다카던 그 문당이리꼬? (감탄) 아~ 신수가 너무 환해져가 몰라봤다. 그래 지금 뭐하노?
우현	(웃으며) 저 번호사 됐심더.
순애	뭐라? 진짜가?
우현	하모요. 그냥 번호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의 절나가는 번호삽니다.

우현,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 끼내 건넨다. 순애 명함 불빛에 비춰보이더니... 읽어본다. '부동산 등기 전문 변호사 노우현니'

순애	(우현 철썩 철썩 떼리며) 잘됐다. 잘됐어.
우현	아지매. 미안합니다.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때 먹고 된 밥 값 갚으러 왔습니다.
순애	문당이. 내 그때 너 사정 알았으면 그깟 국밥 몇끼 못해줬겠나?
우현	아니라에 (만원짜리 몇장을 꺼내 순애에게 주려고 하자)
순애	(철썩 철썩 떼리며) 문당이 치뿌라. 잘됐음 된기고 거 안잊고 다시 찾아왔으니 된기다.
우현	(손에 돈 쥐어주며) 받으이소. 내 도둑놈 만들라갑니까?
순애	됐다. 치뿌라. (우현이 주려던 돈은 바닥에 떨어진다) 마 내 니 잘돼가 오니까 기분이다. 오늘도 꼽짜~
우현	(바닥에 떨어진 만원짜리 쪽으며) 아지매요 내를 진짜 생 양아치 도둑놈 만들라갑니까?
순애	(순애의 매를 뚫고 돈을 쥐어주지만 순애가 말어버려 뒤로 밀린다) 아지매요~
순애	(정색하다니) 야아. 니 잘되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게 내는 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정 갚아야되겠으믄 자주 와라. 돈 말고 나 얼굴하고 발루 갚이라. 내한테는 돈보다 나 얼굴 자주 보여주고 맛있게 밥먹어 주고 하는 게 그게 마 빛갈는기라.
우현	(기분이 짠하다) 아지매... (일부러 좀 오버하며) 내 힘 안아도 됩니까?
순애	(오버를 오버로 받아주며) 문당이. 내 과부 아이가? 나 마누라도 나갔겠다 얼마든지 안아라. 자...

우현 순애에게 안기는데 안기 뒷모습이 살짝 웃는 것 같다

순애 (진짜 아들 달래듯 등 두드려주며) 이 문당이 자씩 이리 여려가 우짜노? 그깟 국밥 맛있게 먹었음 됐지. 어태 얹혔고마이.
우현 (약간 물기 어린 목소리로) 아저께~ 자주 올게요.

21. inserts

- 인서트1

사무실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우현과 사무장.

- 인서트2

전우네 국밥집에서 밥 먹으며 일 얘기하는 우현과 사무장

사무장 맛있게 먹는다.

- 인서트3

열심히 일하는 우현과 사무장

- 인서트4

전우네 국밥집에서 밥 먹으며 일 얘기하는 우현과 사무장

사무장 그냥 먹는다.

-인서트5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우현과 사무장

- 인서트6

전우네 국밥집에서 앞에서 한숨 쉬는 사무장. 마지못한 듯 가게 들어간다.

22. 우현의 사무실/ 저녁무렵

우현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으며) 이따 전우네서 술 한잔 하까요?

배사무장 그, 그게 오늘은 저녁 약속이...

우현 그래예. 소주나 하면서 얘기할까 했는데... 그럼 사무장님 짐칸만 앉아보이소.

배사무장 나 저녁 약속있더니까.

우현 예 짐칸 삼의만 좀 하시죠. 이제 업무 영역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배사무장 그래? 하긴 이젠 여 부산 변호사들 개나 소나 다 등기 도장 찍고 있다더라. 우리 손님 떨어진 거 봐라. 근데 뭐 봐둔 아이템이라도 있나?

우현 세금 쪽... 어떻겠습니까?

배사무장 세금? 좋지~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적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법만 알아가 되나? 거의 회계사급, 세무사급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뱀만 가지고 되겠나?

우현 우리 형이 세무공무원이고 내 상고 출신 아인교? 판 변호사는 몰라도 내는 땅 짚고 해법 차깁니다.

배사무장 아! 그래? 정말? 그럼 내 국세청쪽에 줄 동원해 일 냉겨도 되나?

우현 아! 내 형님 아래서 사랑한다니까. 형님 그러자 말고 오늘 한잔 하입시다.

배사무장 그래. 한잔 하... 나 또 전우네 갈 거지. (우현 고개 끄덕이자) 내 오늘 저녁엔 진짜 약속 있거든. 취소가 안되는 약속이야~

그런데 좀 전부터 창밖이 데모소리로 시끄럽다.

비서무장 (질렸다 싶어 주의 돌리며) 아파 대학생애들 데모하는 거 봄네?
우현 (짜증 섞인 말투로) 저것들 해튼... 저게 다 공부하기 싫어가 뻥뻥이 치려고
저라는 거 아인교?

그런데 창밖 내다보던 사무장이 얼굴이 질려서 노변을 급히 부른다.

사무장 노변! 노변! 잠깐 와서 봐봐야겠다.
우현 (돌아보며) 와요?
사무장 내는 경, 경찰 부를게.
우현 (천천히 일어서다가 경찰이란 말에 표정 바뀐다) 경찰이요? 와 그라는데요?

우현 창밖을 내다보자 '변호사 노우현을 규탄한다.' '사법서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따위의 피켓문구 들 들고 데모하는 건 바로 시법서사들이다.

사법 1 (우현 발견하더니 우렁차게) 노우현이다!
사법들 어데? 어데? (3층 창문 확인하더니) 저기 노우현이가 있다.

우현을 올려다보며 '변호사 노우현을 규탄한다.' '사법서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구호를 외치는 시법 서사들(현재의 법무사). 하지만 데모를 모두 처음해보는 터라 어딘지 모르게 허술한 행색들이다.

우현 (창문 열고) 어와서 왜 이러는교? 내 무슨 잘못 했다꼬.
사법 1 그걸 몰라서 묻는교? 변호사가 왜 부동산 등기를 합니까? 당장 손 떼소.
사무장 (달려와서) 이제 안할갑..흠 (우현이 입을 막았다)
우현 뭔 근거로 나보고 해라 하지 말라 합니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없다 아임니까?
사법 2 아 참말로... 법이 문제가 아니고 관행이 그렇다 아인교? 변호사는 좀 큰 거 둑꼬
우리는 작은 거 둑꼬...
사무장 (우현 손 치우며 의아해서 묻는다) 아 이제 세금쪽 한다매.
우현 그래도 저렇게 때로 몰려와가 육박 자르고... 이건 아니죠.

시법서사들 복치고 징치며 데모한다고 난리를 떠는데 전경들에 쫓겨온 대학생 시위대와 섞이면서 이수리장 이 된다. 전경들 시위대 최루탄 쏘며 쫓아오고 사법서사들 주위에서 최루탄이 터진다. 대학생들은 데모하는 시민들에 힘이 나서 '독재타도!' '유신철폐' 외치며 전열을 정비한다. 눈물콧물 범벅되는 시법서사들.

사법 1 이 무신 개고생이가? 콜록 콜록

사법 2 이게 다 노우현이 때문 아이가? 예취
사법 3 그레 맞다. 이게 다 노우현 때문이다!

대학생들과 사법서사들이 섞인 아수라장 대모현장과 디졸브되면서 자료 화면과 자막 니간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

이어지는 자료화면과 자료 해설 자막이 시간의 흐름과 시대를 연이어 보여준다.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서해

1979년 12.12 사태

1980년 5.17 쿠데타 (전국 비상계엄확대조치)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

1980년 9월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79년 10.16 부마항쟁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을 거쳐 전두환 대통령 취임까지 총 6개의 커다란 정치적 상황이 자료화면과 함께 몇 분여동안 보여진다.

자막 1981년

23. 서울 공안 치안감 사무실/ 오후

경찰들 여럿이 제복 입고 서 있고 차동영(42)도 제복을 입고 서 있다.

치안감 차동영 경감은 국가안보에 혁혁한 공을 세워 이에 표창합니다. 경찰청장 이성호 대독

차동영에게 상장을 주고 경감 직위 무궁화를 직접 달아주는 치안감.

치안감 어르신들이 축해주 산다하니까 저녁때 나 따라오게.
차동영 앱! (경례 붙인다)

24. 서울 어느 요정집/ 밤

안기부 처장, 보안사 대령, 경찰청 검사장 등이 왁자지껄 식사중이다.

문 열리면 치안감이 들어서고 모두들 일어나 악수 건네며 인사한다.

검사장 여~ 치안감님 오랜만입니다.
치안감 검사장님 잘지내셨지요? 아니고 이 대령님, 쇠 저장님 다들 와계셨네요. 제 좀 늦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차동영 경위. 아니 이젠 차경감이죠.

치안감 뒤에 서 있던 경찰 정복입은 차동영, 방안 사람들에게 절도있게 인사한다.

차동영 차동영입니다.
안기부 들어와요. 여 내 술 잔 한잔 받으소. 우리야. 뭐 음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치경감님 같이 경찰이 양자에서 열심히 해주시니 좋습니다
보안사 내 잔도 받으소. 이번에 제일 공이 크셨다고...
치안감 그럼요. 우리 차경감 별명이 뭔줄 아세요. 혁폭단이에요. 혁폭단 일단 뜨면 빨갱이들
 전멸이라고...
보안사 그래서... 우리 차경감님한테 부탁 좀 해야되겠네요. 부산 내려가서 거기도 좀 처리해
 줘요. 서울은 이번에 초토화 됐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부산도 박살냅시다.
(치안감 보며) 그래도 되겠지요?
치안감 그럼요. 나라에서 큰일하는데 필요하시다는데 내 드려야죠.
보안사 자 경찰쪽에선 최고의 카드를 내주셨는데... 경찰에선 누굴?
검사장 강상필이라고 벌써 이번 학령건 자료 다 넘겨받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원래 마약, 공안... 이런 건 중앙지가 좀 떠들어줘야 되는데... 부산이라
안기부 중앙지들 1면 통째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용만 만들어 주세요.
보안사 부산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작년 5.17 비상계엄확대조치 내릴 때 우린 부마사태도
 있고해서 부산이 제일 난리겠지 예측하고 부산을 조질려고 준비했는데 엉뚱하게 광주에서
 그 지랄이 나서... 부산이 산거거든요. 전임 대통령 돌아가시게 된 원인 제공 도시 아닙
 니까? 모두들 긴장해서 바짝 붙여주세요.
안기부 아유. 이 대령. 그 새정부 들어선 게 언젠데... 또 그 얘기야? 이제 좀 봐줘. 그 분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각하도 각하 되신 거잖아. 응?

차경감만 빼놓고 일동 '하하하' 웃는다.

25. 진우네 국밥집/ 저녁

딸랑- 종소리 나고 안으로 들어서는 우현. 십여명의 남자들 우르르 가게로 몰려들어온다.

우현 이 집 억수로 맛있거든. (순애가 반갑게 맞자) 저 고등학교 동기들입니다. 아지매요. 내
 오늘 고등학교 동기회장 됐습니다. 하하.

cut to 시간경과

테이블 이어 붙여 20여명이 앉아 한참 먹고 마시고 있는 가운데 우현에게 '돈 좀 꿔달라.' '송사가 있는데 어쩌면 좋겠나?' 하며 부탁하는 동창들. 우현은 그들의 부탁과 아첨에 기분 좋다. 전 동기회장은 그런 꼴이 보기 좋지 않은 듯 표정이 그렇다. 시계를 보더니 가게의 TV를 켠다. 뉴스 나오자 전 동기회장 일부러 인 듯 소리를 크게 틈다. 그러자 왁자지껄하며 떠들던 모임 뉴스쪽을 바라본다.

아나운서 서울중립법원은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 민중봉기를 일으켜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폭력혁명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복 외 2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 및 종형을 선고..

"야 소리 좀 줄이자" 소리도 들리지만 전 동기회장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들으려는 듯 한마디 한다.

전동기회장 웬 놈의 법이 저 따위고? 저따위로 법집행이 되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우현 (술이 얼근히 취해서) 마. 법을 어겼으니까 잡아넣고 판결 때린 거지. 그게 뭐?
서울대씩이나 가서 고작 한다는 게 데모고 빨갱이질이니? 빨갱이질 한 놈들 잡아 넣은
게 뭐가 잘못됐는데?
전동기창회장 (한심하다는 투로) 나는 순진한기가? 순수한기가? 나는 저서 떠드는 말을 만나?
세상에 온 믿을 끼 방송이고 신문이다.
우현 임마. 신문이랑 방송을 안 믿으면 뭘 믿나? 우물가 아지매들 구라를 믿나?
전동기회장 나 바른 말 하던 사람이나 신문 다 쫓기나고 문 닫은 거 모르나? 제들이 빨갱이라꼬?
우현 잘난체 하지 마라 짜슥아. 저거들 공부하기 싫어 지랄하다 저리 된기다.

그러자 아까부터 우현에게 돈 꿔달리며 알랑거렸던 동창 하나가 우현 말에 동조한다.

동창 1 우리 신임 동기회장님 말이 맞다. 데모한다고 쌤이 나오나? 세상이 바뀌나? 저거들
절 없어서가 지랄하다 저리 된 거 맞다.

그러자 전동기회장이 발끈해서 일어난다. 카운터로 가서 지폐 몇장 옮겨놓고 나가려한다.

전동기회장 내 처먹은 기는 내가 내고 간대이.
동창 2 (쫓아와 말리며) 야. 와이라노, 우현이가 기분 좋게 한턱 쓴다는데. (새끼 손가락
들어보이며) 2차도 쓴다 안하나?
동창 3 마 이리와 앉아라. 전임 동기회장이면 넘버 투 아이가? 넘버 투가 기면 우짜노? 니
벌써 취해가 주사하나?
전동기회장 내가 주사를 해? 이 봐라! 주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지랄한다고 우겨대는 애가
주산기라.
우현 (발끈) 말이 심한 거 아이가? 내가 뭘 우겼는데?

전동기회장 나 대학생들이 와 데모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나? 너 말대로 서울대씩이나 간 놈들이 와 저라는 거 같노? 공부하기 싫어 자랄한다고? 너...가 자랄이다. 이 문당이 자슥아. 돈 좀 바니까 세상이 나끼 같나?

우현 이 세발. 너 지금 대학 다녔다고 재들 편드나? 네는 대학 못 가봐 모르겠지만 공부하기 싫어 자랄 떠는 거 아이면 원데?

전동기회장 내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그러는 거... 그거 열등감이다. 너 그렇게 평생 열등감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끼까?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변호사식이나 된 놈이면 말이다.

참다못한 우현, 동기회장에게 몸을 덮친다. 그와 동시에 시작되는 싸움. 동창들이 말려도 소용없다.

Cut to 시간경과

혼자 남아있는 우현. 입술 터지고 여기저기 상채기 난 얼굴. 진우가 우현에게 약을 발리주고 있다.

우현 (소독하자 아프다) 아...

진우 대학생들 데모하는 거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이소. 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우현 (신경 거슬린다) 와? 너도 데모하나?

진우 (웃으며) 아입너더. 데모는 해본 적 없어예. 하지만 선배들하고 독서모임은 합니다.

우현 독서모임?

진우 모여서 책 좀 읽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변호사님이라면 다 읽어봤을 그런 책들 가지고예.

우현 나라면 다 읽어봤을 책?

진우 예. 저 아직 많이 읽고 배워야 될 학생이잖아요. 많이 읽어봐야지요. 그래서 자 힘으로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맴은 있습니다. (목소리 낮추며) 이건 어무이한데 비밀인데요. 그 선배들이랑 야학에서 누나들 공부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진우 약바른 상채기에 대일밴드를 붙여준다.

우현 그래 좋은 일 하네. (담배 꺼내 불 붙이며) 근데 너도 쪼매 더 살아보믄 알겠지만 세상은 절대 안 변한다. 결국 깨지는 기는 사람인기라. 그래 그런 말도 안있나?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진우 (맑고 또렷한 눈으로) 하지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그 바위를 넘는다.

우현 ?!

진우 (미소 지으며) 책에서 읽었어예-

진우의 맑고 강한 눈빛에 술이 깨는 듯한 우현. 그때 순애 나오며

순애	(진우 보며) 야야 니 안늦었나? 아까 간다카더니...
진우	(시계보더니) 엇! 저 같게요. (우현보고) 또 볼게요.
우현	그래. 고맙데이 너는 기계과 같게 아니라 의사를 했어도 잘했을걸는데...

진우 우당탕 뛰어나가자 순애 우현의 귀를 잡아 땅겨 일으킨다.

우현 아~~ 아지매요. (귀 놓자) 아무. 아지매. 왜 이러십니까?

순애 니 놈은 나이를 콧구녕으로 쳐먹었나? 콧구멍으로 쳐먹었나? 나이두 목을만큼 쳐목고
번호사립네 하며 가오는 가오대로 다 잡드니 애들맨치로 쌈박질이나 하고... 이게 무꼬?

우현 죄송합니다.

순애 (다시 귀 잡아댕기며) 죄송하지 그럼. 나 미누라는 모르게 해라잉. 나 닮은 애 나올까봐
무섭다고 부랄 떠자구 그런다.

26. 우현 해운대 아파트 / 밤

현관문 열어주며 우현 맞이하는 수경 놀랜다.

상처 살피던 수경, 의아하다는 듯

27. 부산지방검찰청 강 검사 집무실/ 오전

강 검사 (손 내밀며) 공안부 강상필 검사요.
차동영 (악수 받으며) 차동영이라고 합니다

강 검사 차 경감님 명성이 여기 부산까지 자자합니다.

강 검사, '부산 지역 요시찰 인물' 서류 파일 차경감에게 준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어 내리는 차동영. 대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학과, 학번, 최근 활동사항등 신상명세로 가득하다.

강 검사 학림사건 참조해서 부산에서도 본보기 하나 만들라고 해서 조사는 해놨는데 뭐 뾰족한 건 없네요. 내가 맡은 일은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내는거고 차경감님이 뾰족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서울에서처럼...

차동영 (강검사 말에 비위가 상한듯) 검사님. 아버님 뭐 하셨습니까?

강 검사 (묻는 투가 기분 나빴다)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가 왜? 그냥 뭐 농사짓다가. 근데 왜?

차동영 전 아버님도 경찰이셨습니다. 일제시대엔 특별고등계라는 게 경찰내 최고의 엘리트 조직이었는데 아버님이 거기 개셨지요. 어렸을 때 저보고 뭐 되고 싶나? 갈래 저도 경찰이 되겠다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고등계 형사가 범인 잡겠다고 뛰어다니면 이미 나라는 망한 거다. 고등계는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범인이 더 안생기게 예방하는 자리다. 저나 검사님은 빨갱이를 잡아들일 게 아니라 예방해야죠.

강 검사 가슴에 와닿는 말이네요. 참 출중하신 부친을 두셨습니다. 지금은 뭐하시나요?

차동영 6.25때 학살당하셨습니다.

28. 대공분실(구 삼일여관)/ 저녁 무렵

부산 삼일여관, 4층짜리 낡디 낡은 여관 건물이다. 차동영을 따라 건물 안을 돌아다닌던 강 검사. 용역들이 방마다 책상과 집기류를 넣고 창문을 널빤지로 막고 문마다 자물쇠를 달고 있다. 밖을 나오자 삼일여관 간판을 삼일문화사라고 달고 있다. 강검사 현관에 서서 주변 살피니 유흥가다.

차동영 강검사님은 여기 오시면 강사장님이십니다. 나는 차전무고요.
강검사 아니고 중요한 나랏일 하니까 출지에 대표이사 됐네요.

그때 여관 입구에 도착하는 지프차. 군복 입은 남자가 내린다. 어깨에 달린 소위 계급장, 윤성두 소위다. 준수한 외모에 여러 보이는 눈빛을 가진 군의관. 차동영이 비맞으며 다가간다.

차동영 (명찰 읽는) 윤성두 소위?
윤소위 암!
차동영 내용은 대강 들어서 아실테고...
윤 소위 (난감) 어떤 업무인지 모르고 차출됐습니다. 책임자에게 직접 들으라고.

윤소위, 이런 곳에서 자기가 무슨 할 일이 있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차동영 군위관 아닙니까? 사람 살리셔야지.
윤 소위 (어리둥절한) 네?
차동영 만약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죽어나가면... 당신 책임이야. 그리고...
 내일부터 군복 입고 출근하지 마시고... 당신 여기오면 윤과장이야. 알겠지.
강검사 (우산 들고 와 썩워주며) 군검경이 한 우산 밑에서 힘을 합치는군요. 잘해봅시다~
 나 강사장이요. 그래 우리 차전무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차동영 (담배하나 피워줄더니) 이 담배 다 파구요.

29. 아학교습실/ 밤

진우(V.O) 나는 아사코 신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
 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
 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웠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진우가 가르치는 강의실 창너머로 비가 내리고 그 창에 진우가 가져온 비맞은 우산이 놓여 있다.
진우가 고1 국어 강의중(?)인데 부끄러워 여공들 얼굴은 못보고 교과서로 얼굴 거의 가리고 읽고 있다.

진우 셀부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 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여공1 애. 비도 오는데 너 첫사랑 얘기나 해봐라.
여공2 이 누나가 아사코 해주까?

여공들 까르르 웃는다. 얼굴 벌개진 진우 교과서에 얼굴을 완전히 감추고는 책을 읽어나간다. 까르르 웃던
여공들 여기저기서 잡담 시작된다. 진우 어찌할 줄 몰라하다가 목소리 높여 응변조로 읽어나간다

진우 그 후 또 십여 년이 지났다. 그 동안 제 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
 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나 있었나, 남편이 전사하지나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
 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도쿄에 들러 ■ 선생 댁을 찾아갔다. 뜻밖에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 선생 내외분은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진우 교과서를 내리고 얼굴을 보이더니 목소리 듣 더욱 올리며 교실내 소음을 정리해
 나간다) 저는 여기가 걸립니다. 물론 작가분께서는 수필이 가진 특성상 본인의 개인적인
 내용을 적으시느라 그려셨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불행했던 시기인 일제 시대 그리고

해방 전후 전쟁시기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뒤로 밀리고 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실 이제 완전히 조용해지고 모두 진우만 본다) 시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역사는 진보하지 못하고 사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지는 첫사랑은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은 치열하게 ...

진우의 진솔한 얘기에 집중하는 여공들. 그러다 진우가 말을 끊고 입구를 바라보자 여공들도 고개돌려 뒤를 바라본다. 거기엔 수업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이방 선글라스 끼고 빠딱하게 서 있는 차동영이다.

진우 어떻게 오셨는가?

차동영, 라이방 선글라스를 벗고 진우를 느물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차동영 빨갱이 날세나서... 와보니 와보니 빨갱이 날세가 지도을 해네

일순 일체의 소음이 사라지고 숨 막히는 기장에 희싸이는 교신

팽팽한 침묵의 선을 끊은 것은 어딘가 다른 방에서 들린 ‘저 새끼 잡아!’ 하는 음성과 함께 들린 호각소리다. 여곡들 막로는 묵하고 능지과 임모양으로 ‘드마년기’ 고사로 험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짓을 험다보는 화도연 피의 꿈네 짓을 대조해보니

차동영	(신상명세서 읽듯) 이름 박진우. 부산대 공대 1학년. 가족관계 어머니 하나. 매주 금요일 독서모임, 야학 주 2회 화목 저녁 어딜시 시부터 열한시까지... 너 맞지?
진우	(얼굴 하얗게 질리는)!
차동영	너지? 근데 너 도망 안쳐나?
여공1	(날카롭게) 진우야 도망쳐!
여공2	찬문! 찬문!!

그러자 엉겁결에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치는 지우

-GTR 10 골목길

부산의 좁은 골목길 왜 도망쳐야 하는지도 모르는 지용가 몸속을 걷고 뛰고 있다

지우의 뒷박질이 비에 직커이다. 그렇게 한차을 다리더 지우, 파자지 다버라 미에 스는데,

여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의가 잠자한다. 기자회견을 수용하고는 같은

늦치 살피며 나오는데 그보다 편- 엔터테인먼트로 뒤 머리를 짜매저를 찾으니에 차운다며 축하해

CEK 52

지프차 뒷좌석에 처박히는 진우. 지프차 뒤에 이미 두 명이 포대자루 뒤집어 쓰고 수갑채워진 채 던져져 있다. 지프차는 척무단에게 그을려졌다.

-CUT 10. 교습실 참고방

형사들이 청고방에서 책들을 담는다. -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역사란 무엇인가 - E.H.Carr-" 등의 책 보인다. 형사중 누군가 책을 펼치자." 박진우 "라는 이름이 씌여져있다. 형사 이름 확인하자마자 마대자루안으로 책들 집어 던지듯 쓸어 가져간다.

30. 대공분실/ 밤

포대자루 뒤집어 씩워진채 바닥에 집어던져지는 전우, 형사10이 포대자루 활 벗기자

진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형사 벗어.

형사2가 군복 하나를 앞에 던진다. 진우 겁 먹고 움츠려들어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자.

형사2 범구 갈아입으라고 새끼야

형사2 발길질해서 진우를 넘어뜨린다. 그리고 우악스럽게 진우의 옷을 껍질 벗기듯 벗긴다. 순식간에 팬티 바람으로 벗겨진 진우, 폭력에 정신을 못치리고 부들부들 떨다가 군복을 짓는다.

진우 (잔뜩 겁 먹어 허겁지겁 갈아입으며) 여기 어디에요? 저한테 왜 이거세요?

겁 먹은 진우 훌쩍거린다. 그때 차동영 들어와 서류철과 대조하며 진우를 살펴 보더니 서류철 덮고 진우에게 다가온다. 훌쩍훌쩍 자똑겁 겁먹은 진우 보자 진우 머리 쓰나트으며

차동영이 철문 닫고 나가버리자 형사 1,2 수조에서 물에 젖은 수건을 끼내 동등이에 칭칭 감는다.
기술적으로 물에 젖어 착착 감기는 수건. 진우 겁먹는다.

진우 여기 경찰서예요? 저... 집에 연락 좀 하게 해주세요.
형사1 좀만 기다려라. 준비 끝나기니까
진우 00-0000 이에요. 엄마한테 저 어겼다고 전화 좀 할게요.

그러나 진우 더 말을 못하고 꺽!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진다. 그리고 진우를 향해 내려꽂히는 봉등이질. 몇 번 맞을 때 진우 소리도 지르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봉등이질에 반응이 없다.

때리는 형사들의 거친 숨소리 들리고 벽 너머로 유흥가의 흥청망청한 소음이 이명처럼 들린다.

-att 10. 대공분실 복도

남자들이 각각 기절한 남자의 손을 하나씩 잡고 질질 끌고와 복도에 놓고 간다.

보면 윤 소위가 남자들이 패서 기절해 놓고 간 이들을 살피고 있다.

윤 소워 괴로움과 안타까움으로 범벅된 표정으로 동공을 살피고 상처를 살피고 있다. 그러던 중 기절해 있던 지우가 “으으으...” 신음 소리와 함께 정신이 돌아온다.

정신이 돌아오는 지우의 눈에 옆에서 치료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윤 소위 얼굴이 어렴풋이 보인다.

진우 (파식 새아나이의 목소리로) 지...집에 연락 좀 하게 해주세요.
윤수원 (직히) 기절한 척 있어. (옆의 사람 계속 살피다. 약 가지려 일어나 의무실로 간다)

그때 진우에게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그때 선배 눈감으며 진우에게 손가락으로 ‘쉿~’ 시늉을 한다.

남자들이 또 학명의 기절한 사람을 끌고와 복도에 놓고 간다. 그들이 가자 선배 눈을 떠 주변을 살피곤...

기웅선배 (진우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진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들어. 우린 너 딱 한 번 봤다고 이를도 모른다고 그럴 거야. 너도 처음 구경왔다가 잡혀왔다고 그래. 알았어?

지운 (수지하게) 우리 열 번은 봤잖아요.

기웅선배 (진우 턱을 잡고 말 못하게 하며) 너 인혁당 사건이라고 들어봤니? (진우 고개 좌우로 흔들자) 그런 게 있었어. 우리처럼 공부하다 잡혀가서는 1/3은 사형받고 나머진 무기 징역 받았어. 살아서 엄마 보고 싶으면 우리 모른다고 해. 넌 멋도 모르고 처음 구경 왔다가 재수없게 얼멸결에 잡혀온거야. 알겠지? 무섭다고 시키는 대로 했다간 너 다신 세상 못본다.

그때 형사 한명이 기웅선배가 웅얼거리는 걸 봤다. 몽둥이 들고 뛰어와 그대로 내리까곤 “이 빨갱이 쉬꺼
여가 어디라고 떠들어. 야! 이거 다시 끌고가” 하며 팔 잡고 질질 끌고 간다. 그런데 팔이...
의무실에서 나오던 윤소위가 그걸 보고는 몸으로 부딪쳐 그 형사를 떨궈내며 외친다.

유소위 세발. 적당히 좀들 해. 팔 부러져서 달링거리는 거 안보여. 쌩...

기절하던 눈 깎은 채 있는 진우,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린 진우의 눈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자막 - 한 달 후

31. 부산지방법원 민사법정/ 오후

땅땅- 판결봉 두드리는 소리가 울리자 주먹을 불끈 쥐는 우현.
우현에게 인사를 넓죽하며 감사를 표하는 의뢰인, 환히 웃는다.
사무장에게도 악수를 건네며 환히 웃는 의뢰인 모습.

32. 해운대 아파트/ 밤

세벽녘 거실에서 돈 쌓아놓고 돈 정리 하던 우현과 수경, 옛날과 달리 거의 다 만원짜리고, 수표도 보인다. 우현 피곤한 듯 고개를 돌리며 힘겨워 하자 수경 걱정되서 우현이 보다가 우현의 입술 틴 걸 본다.

수경 아유. 여보 입술 터졌어요. 당신은 좀 쉬어요. 내가 마무리 할게요

수경 그러면 꿀을 가져와 무현 입술에 발리주는데 무현 혀로 그 꿀 닦아먹는다.

수경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 (다시 바른다). 여보 이제 당신 몸도 좀 생각해야죠. 아래가 어찌 한 대요?

우현 사무장 행님은 일할 번호사를 늘리자카던대... 내 뭐 친한 번호사가 있어야지

수경 김광삼 변호사님하고 친하시잖아요.

우현 그 형님은 나하고만 친한 게 아니고 다 친한거지... 여보야, 나 꿀 차나 좀 타줘.

수경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며) 그래도 누구 당시 도울 사람 있어야 안되겠어요?

우현 아내 수경이 빨라준 꿀, 혀로 열심히 닦아먹으며 ‘그렇지...’ 하는 표정

33. 김광삼의 사무실/ 오전

김광삼 변호사 손수 커피타서 탁자로 가져와 무현앞에 커피 내려 놓으며

김광삼 이제 부산 법조계에서 노우현이 모르면 간첩이 카라데

우현 못 배운 놈이 돈만 드럽게 밝힌다니 안합니까?

김광삼 소문에 유토도 산다카던대

김광삼 내는 간신히 간신히 산다. 사무실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고 중국집에서 외상도 안준다.
우현 (진지한 표정) 행님 제가 변호사를 좀 모아가 법무법인을 하나 만들라카는데.. 지보고
언놈이 오겠습니까? 행님 인덕으로 변호사들 좀 모아가 서울처럼 법무법인 만들까 하는
데... 어찌십니까?
김광삼 (헛웃음 짓다가 정색하며) 안됐지만 나 변호사 자격정지 상태다.
우현 마 지가 그걸 모르고 왔겠습니까? 자격정지 풀릴 때까지 돈은 제가 벌게요. 솔직히
요즘 돈이 앞에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춤추는 데 그 돈 잡을 손이 부족해 죽겠심더.
김광삼 (심각하게 듣다가) 노변. 제안해줘서 진짜 고맙고 나한테까지 온 거 보면 정말 일손이
급한 것 같아 나도 안타까운데.. 노변이랑 나는 가는 길이 워낙 다르다. 같이 못간다고
섣불리 생각하진 말고... 더 좋은 사람으로 찾아봐라.
우현 (뭔지 모를 거리김) 섭섭은요... 알겠습니다. (허허 웃는 표정 억지로 저어 보이곤)
일어서서 나가다) 참. 요트 얘기 꺼내셨으니 한번 부두로 나오이소. 행님 모시고
수영만 한번 싸-악 들고 소주 한잔 대접하께예.

그때 김광삼 사무실 전화벨 울리고 김광삼 전화받는다. 나가는 우현에게 절가라고 손짓하고 우현도 그냥 나선다. 우현 나가고 전화받는 김광삼의 표정 어둡다.

김광삼 (심각) 알았다. 이이다. 내 가제. (전화 끊고 잠시 있다가 주먹으로 책상을 쿵!친다)

34. 진우네 국밥집 / 정오무렵

우현, 순애의 국밥집에 도착했는데 굳게 닫혀있고 '시정으로 잠시 쉭니다.'라는 종이는 벌써 누렇다. 우현 헛걸음이 아쉽다. 옆에 보니 다른 돼지 국밥집이 보인다. 그 앞에 서서 잠시 고민하던 우현. 그러다 담에 먹지 하는 표정으로 가버린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나타나 옆의 국밥집으로 들어가며 우현의 목소리 들린다. "여 국밥 하나 말아주이소"

35. 진우네 국밥집 옆 가게 국밥집 / 정오무렵

거스름돈과 건네는 주인 할머니께.

우현 옆에 국밥집이요... 거긴 왜 문을 안 열었대여?
할머니 그 집 아들내미 없어져가 자슥 찾는다고 난리도 아닌가빠. 없어진지 한 달이 훌쩍
넘었으니 뭔일이 나도 제대로 안났겠나? 애 참말로 착하두만...

우현 얼굴이 걱정으로 굳어진다. 국밥집 나오며 진우네 국밥집 한 번 더 쳐다본다.

36. 부산지검 앞 / 이른 오후

이상록 변호사 힘 없이 걸어나오고 김광삼 지검쪽으로 뛰어온다.

김광삼	(헉헉) 그래 어찌됐다고?
이상록	국보법으로 다 엮는단다. 서울서 학림사건이라꼬 독서모임 뒤지고 얘들 조져서 엮이 넣었다더니 그 수법 고대로 여기 부산도 또 옥 같이 엮었더라.
김광삼	(충분해서) 개 쌩놈의 새끼들... (잠시 정적, 그러는 사이 디리 힘이 빠지는지 무릎에 손을 얹고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번호인단 꾸려야 안되겠나.
이상록	(고개 흔들며 쭈그려 않는다) 그 일 땜에 오라간거다. 나나 내나 번호 맡으면 우리까지 엮이 버린단다. 내보고 그러더라. 같은 법조인이라 봐준 거라고.. 우리 안 엮은 거 감사하란다. 감사... (김광삼도 못버티고 쭈그려 앉자 얼굴 맞대고) 저 놈들한테 안 찍힌 번호사 중에 말 통할만한 친구로 버텨봐야 안되겠나?
김광삼	(쭈그려 앉은채 하늘 바라보다가 기가 차는지 헛웃음 지으며) 제들한테 안찍히 번호사?

37. 우현의 사무실/ 이론 오후

우현 의뢰인과 협의중인데... 샤프하게 생긴 남자 한명과 중후하게 생긴 중년의 남자 들어온다. 배동화 사무장 맞이하는데 명함을 받더니 배동화 태도가 극존대로 변하며 소파로 두 남자를 모신다. 샤프한 남자는 우현이 의뢰인과 상담하는 내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우현	(서류를 넘겨보다가 고개 들고)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의뢰인	(이리둥절해하며) 무슨?
우현	지금 맞은 돈 중에 삼분의 일만 내는 걸로 마무리 할자, 아니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다 냈다가 나중에 다 찾아 오는 방법 중 어느 게 나오시겠습니까?
의뢰인	어이고. 1/3만 내도 만세지요.
우현	그래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한편 우현은 어딘가로 전화 건다. 전화 받기까지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리던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그때 저쪽에서 전화 받았는지... 얘기 시작하다

우현 (서류 다시 확인하며) 김 과장님, 납니다. 예 노우현이요. 잘지내시지요? 하하. 죄송합니다. 제 하는 일이 세금 깎아주는 거 아입니까. 우짭니까? 다음이 아니라. 김 과장님에서 영우 실업 법인세 처리했지요. 그거 말이에요. 시행규칙 적용을 잘못해더데

(잠시 듣다가) 나도 소송까지는 안 갔으면 싶네요. 조정 좀 잘해 보입시더. (잠시 듣다가) 아니죠. 법대로 하면 다 돌려받지요. 근데 영우가 지금 자금도 몰리고 시간이 없어서 양보 의사가 있는 거 같거든요... 예! 1/4선에서 쇼부 저주면 내 영우보고 소송 까진 안가게 설득해 볼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전화 끊으며 자신만만하게 의뢰인에게) 들으셨지요. 1/4 정도로 세금 청구서 다시 올 겁니다.

의뢰인 (일어서며 악수 건넨다) 이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꽂이 편다)

우현 수임료는 베 사무장님아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의뢰인 베 사무장님 내일 오소. 내 현금으로 준비해놓고 있으께.

배동화 (문밖까지 안내하며 인사한다) 예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박사장님

문 닫고 고개 돌린 배동화 사무장 샤프남과 우현 소개시켜 주려는데 이미 서로 인사중이다.

부회장 (우현에게 명함 건네며) 저 해동건설 부회장 이창준입니다.

CUT TO / 시간경과

사무장이 기빠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배동화 이번 해동 건설 증여세 건은 대한민국 생간 아래 50위 안에는 들어가는 규모데이. 성공 보수로 받는 돈도 돈이겠지만 노번! 이거만 이기면 해동 건설 수식 번호사도 따는 당상인가라.

우현 너무 김칫국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배동화 김칫국은? 해동이면 여기 부산에선 1위, 전국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대건설사 아이가? 그 큰 회사를 회장이 부회장 아들 내미한테 물려주는 건인데... 이기기만 해봐라. 그 공이 얼마나 크겠노? 인생 완전히 갈아 타고 이제 마 전국구 번호사로 비상하는거라. (자체 흥분해서) 아~ 서울 김 앤 장 그린데루 갈줄 알았더니 이 큰 게 노번한테 오네. 엉? 노번~ 내 참 격하게 사랑한데이. 내 뾰뽀 함 꿐하게 해도 되나?

우현 왜 아辱니까? 행님. 징그럽소~마. (급진지해지며) 행님에. 참 저 부탁 하나 하입시더. 행님 경찰에 줄 있으시지요. 혹시오. 만약에... 20대 초반 남자애 시신 발견된 거 있거나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잡힌 사건이나 사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이소.

배동화 박진우...면 그 국밥집?

우현 예... 그 국밥집 진우가 행불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답니다.

배동화 아... (고개 끄덕이며) 알아보께. (우현 나가려하자) 노번은 어디 가려구?

우현 신 나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습이나 하려구요.

38. 광안리 앞바다/ 오후

납빛 구름이 둥글대는 망망대해. 요트가 팽팽하게 바람을 맞으며 묵직한 파도를 헤치며 전진한다. 그러나 파도가 요트 한쪽을 때리는가 싶더니 곧 어푸- 바닷물을 뱉으며 튀어나오는 얼굴. 우현이다.

39. 광안리 선착장/ 오후

바다가 보이는 선착장에 앉아있는 김광삼. 우현의 요트가 도착한다.

김광삼 태평양도 횡단하는 호화 요트리카드만....
우현 실망했는교? 이 전문용어로 '당기'라고 하는 경주용 2인승 요트입니다.
김광삼 경주용?

보트를 선착장에 앵커 시키는 우현.

CUT TO 선착장을 걸어 나가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둘.

우현 저 말입니다. 올림픽에 나갈라꼬에.
김광삼 (이건 또 뭔소리지? 하는 표정...)
우현 담달에 88년도 올림픽 개최지 선정되는 거 아시자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력하답니다.
 올림픽 열리믄, 여 광안리에서 요트 경기가 벌어진다 카네요. 근데 아십니까? 요트
 경기는요. (약간 흥분해서) 선수가 요트를 가지고 있어야 출전이 됩니다. 근데 한국엔
 요트 있는 선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해보려구요.
김광삼 (소문에 훨씬 본인도 민망한지... 씁쓸하게 웃으며) 그랬던건가?
우현 (웃음의 의미 눈치채곤) 어 부산 번호사바둑에서 뭐라 수군거리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고등학교 밖에 못나온 가난하고 무식한 놈이 돈만 밝혔다고요. (잠시) 내도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노우현이! 어떻십니까?
 안 멋있습니까?

어린 애처럼 신난 얼굴로 말하는 우현.

김광삼 (진지하게 조심스레 본론 깨낸다) 이봐 노변. 자네 혹시 학림사건이라고 들어봤나?
우현 (순진하게) 학림아요? (전혀 모르겠다는 듯 고개 가로젓는데...)
김광삼 국보법 사건인데... 부산에도 그거랑 비슷한 국가 보안법 사건이 생겼다.
 노변이 내 대신 변론 좀 해줄 수 있겠나 해서 와 봤다.
우현 국가보안법 사건을요? (잠시 멀뚱히 쳐다보다가)
김광삼

우현 내 말고 몇 명이나 번호사를 만났는교?
김광삼 (무슨 얘긴 줄 알아듣고 씁쓸히 사실을 말해준다) 열 명은 넘었다.
우현 선배님! 선배님이 맞게 보셨습니다. 저는 선배님 같은 투사 아닙니다. 저는 속풀 세법 전문 번호삽니다. 선배님 말대로 가늘 길도 다르고 뜯어먹고 사는 풀도 다른 걸 아쩌겠습니까? 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여까지 오셨으니 맥주라도 한잔 하시고 들어가이소.
김광삼 미안하네만 다음에 마시지. (돌아서려는데)
우현 그냥 가시은 섭섭해서 가신 걸루 압니까이. 맥주 한잔만이라도 들고 가이소. 날도 더운데...

우현 돌아보는 김광삼의 씁쓸한 표정-

40. 부산골목/ 저녁

예로 영화 포스터 가득한 골목을 지나자 술집간판이 즐비하다. 그 중 한 호프집 문앞에 '총천역색 초대형 컬러TV' 들어봤습니다.'라고 써붙여있다.

41. 호프집/ 저녁

호프집 만석인데 컬러TV 앞에 손님들 진뜩 붙어있다. 손님들의 탄성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벽에 걸린 컬러TV에서 여배우가 총천연색 광고에 나오고 있었던 것, '야 진짜 이쁘네.' '역시 정윤희가 짱이라니까' 우현도 맥주 마시다가 슬쩍 TV쪽을 바라본다.

우현 선배님은 칼라 텔레비 사셨습니까? 전 하나 들어놔야 되겠네요.
김광삼 (무거운 표정. 우현을 바라보다가) 노번. 저 컬러텔레비 말이다. 이미 7년 전부터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가 왜 지금에야 파는지 생각해봤나?
우현 (맥주 마시며 관심 없다는 듯) 그랬습니까? 생각안해봤는데요. 피니까 좋네요.
김광삼 이제 통금도 푼다하네. 지금 전국 각지 사창가에선 통금 풀면 대박 난다고 물주 잡고 여자애들 구하느라 난린 거 아니?
우현 (맥주 마시며 잘난 체 그만하라는 식으로 야지 주듯) 그래예? 완월동도 난리겠심.
김광삼 (고개 끄덕이며) 완월동도 난리재. 니 완월동은 어찌 시작됐는지 아니? (우현 고개 가로젓자) 왜정 시대 테라우찌란 종독이 만들게 한거다. 그노마가 왜 만들게 했겠나?
전두환이는 왜 통금을 풀고 칼라 텔레비를 풀고 올림픽 하겠다고 그러겠나?
우현 올림픽이오? 거기서 올림픽이 왜 나온니까? 올림픽이 무슨 상관이라꼬?

그렇게 향변하는 우현의 머리위로 거의 반누드의 어인이 등장하는 술광고 포스터 붙어있다.

김광삼 색스, 스크린, 스포츠의 S 세 개를 따서 3S 정책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 어느 시대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통치는 한결 쉽거든. 애로영화 보고 떡을 차던 땀을 겁던 에너지는 그걸로 풀어라. 그래도 힘이 남으면 축구, 야구, 운동경기 보면서 힘풀어라. 라. 괜히 거리 나와서 돌 던지면서 개기지 말고... 그런 거지.

우현 ...

김광삼 (우현이 자신을 빤히 보자) 이 정권이 총칼로 뺏은 정권 아이가? 총칼로 위협하니까 얼핏 힘이 센 거 같지만 사실은 지내들도 아는거다. 모래 위에 지어진 공화국이란 걸.

김광삼 맥주 들이키더니-

김광삼 (일어서며) 잘마셨네 맥주.

김광삼 나가고. 우현 어어 하면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본다. 자신의 뒤에 붙어있던 반누드 포스터들이 온 호프집에 가득하고 호프집에 가득 들어찬 사람들 시선은 컬러TV에 집중하고 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MV가 나오자 사람들은 침이나 맥주만 끌딱끌딱 삼키며 텔레비 바라보고 있다.

42. 부산지방검찰청 강 검사 집무실/ 밤

집무실에서 보좌관의 보고를 받는 강 검사.

보좌관 공판 시작 3일밖에 안남았는데 아직 맡겠다는 변호사가 없답니다.

강 검사 (인상 짜푸리며) 국선으로 가면 모양새가 좀 그런데... (고민하다가) 박병호 변호사 까진 괜찮다고 흘려. 그 양반은 민한당 공천이 목적이니까 우리도 편할 거고...

보좌관 예~

강 검사 보도 자료는 제대로 뿐인거지?

보좌관 그건 안기부에서...

강 검사 가서 우리도 확인해. 어쨌든 뿐인 주천 우리로 돼있어.

보좌관 예.

43. 경찰서/ 밤

나이든 형사가 배동화 사무장에게 서류를 넘기려다가... 멈추곤 다짐받듯

형사 이 아직 절대 비밀이야. 언론부터 빠방 터뜨리면서 갈 거리니까 아는 척 하려면 내일

지나 모래부터 해. 알았지? (사무장 고개 끄덕이자 서류 건네주며) 근데 그 진우라는
애는 아는 애야?

사무장 단골 식당 아들내미. (서류 받아 몇 장 넘기더니) 부림사건?

형사 얼마 전에 서울서 학림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건 부산 학림이다. 그레가 그렇게 줄여
부른다네. (주위 다시 휘휘 살피더니) 이 사건.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소문이야.
그 단골집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까. 어쩌겠어? 땀집 뚫어야지. 내 솔찍
보니 이미 게임 끝났두만. 이거 번호 말았다간 뚱 치러 들어가서 뚱 쌈놈으로 찍한다고

사무장은 묵묵히 서류를 몇 장 더 넘겨본다. 그러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는 서류철 다시 형사에게 주며...

사무장 말씀대로 게임 끝났네요. 간만인데 우리 소주나 한잔 하끼에.

사무장, 형사를 어깨동무 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아 이건 용돈, 형사 사건을 좀 해야. 형님 용체도
자주 드리고 그러는데...” “뭘 이런 걸 다” 등의 대화 나누며 나가는 두 남자다.

44. 김광삼 사무실 / 오전

사무장이 보다 놓고 나온 그 사건 서류 사본, 이상록 변호사가 김광삼 변호사에게 넘기고 있다.

이상록 (사건 서류 내놓으며) 간신히 구했다. 거기도 국선 쓰면 모양새 빠질까? 신경 쓰는
눈치더라. 솔찍 구색만 맞춘 변호인단 짜면 안되겠냐고 짤라보더라. 박병호 변호사 얘기
도 하고...

김광삼 박병호? (생각하는 표정으로 잠시 있다가 일어서며) 내 만나볼게.

이상록 박변은 형량 네고 하자고 할건데...

김광삼 (뒤돌아 보지 않고)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썬운 놈들이야. 재판이 뭔 소용이겠어.
차라리 박변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잖아.

이상록 (무력감과 자괴감 어린 표정) 냉겨와라.

45. 진우네집 앞/ 늦은 오후(저녁 무렵)

부산이 내려다보이는 달동네 집, 순에 완전히 탈진된 모습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데 집배원 한명이 자
신의 집안을 살펴보고 있자. 덜컥하는 표정. 집배원 순에 보더니

집배원 최순애씨?

순애 대답은 못하고 눈도 깜빡이지 못한채 고개만 끄덕인다. 집배원 등기편지 내밀고 순애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등기 편지 받아든다.

46. 신문배포

조선신보, 동국일보, 센트럴뉴스, 부산 등 중앙지 및 지방지 등 1면 톱기사로 부림사건 다룬 채 윤전기에서 찍혀 나온다. 신문들 윤전기에서 트럭으로 옮겨지고 트럭은 각 배급소로, 배급소에서는 배달부 자전거로 옮겨진다.

안기부 처장의 집에서도, 검사장, 치안감, 보안사 대령의 집에서 신문 수거해 보기 시작한다.
모두 부림 사건이 일면 톱기사로 나와있다. “6.25 이후 부산지역 최대 반정부 조직 일망타진”
“부산지역 대학생들 다수 포섭, 혁명으로 정부 전복 노려”

47. 우현집 / 아침

우현도 별생각없이 신문보며 아침 식사중이다. 전화벨 울리고 수경이 전화받더니 우현을 부른다.
우현 신문 식탁에 나둔채 거실로 나가 전화받는다.
식탁위에 펼쳐진 신문 헤드라인 “부산지역 대학생들 다수 포섭, 혁명으로 정부 전복 노려”

우현 (V0) 하모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도 갔다왔다 아인교?
 ... 오케. 그럼 사무실서 보입시다.
수경 (V0) 뭔일 있어요? 식사 더 하이소.
우현 (V0) 이따 해동 건설 회장 만나 점심 먹기로 했다. 어디 오늘의 운세 좀 보까?

우현의 손 쑤욱 들어와 신문 오늘의 운세편을 본다.

우현 동쪽이 길한 방향... 거기 동쪽인가? (그리며 동서남북 가늠해본다)

48. 우현 사무실 복도/ 아침

우현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통해 복도로 들어서는데 사무실 앞에 누군가 쭈그려 앉아 졸고있는 게 보인다.
누군가 싶은데 초췌해진 할머니 같은 여자... 순애다. 우현 놀라며

우현 아, 아... 아자매요. 어 웬일이십니까?
순애 (눈뜨고 우현 올려본다. 처음엔 차마 말이 안나와서 입만 우물개린다) 느 벼... 번호사

마, 맞재?

우현 하모요. 근디...왜? 진우가 어찌 됐십니까?

순애 (진우라는 말을 듣자... 올 듯 하지만 악으로 깡으로 정신줄 끊고 눈 부릅뜨며) 말이
되나? 진우가... 우리 진우가...

우현 (진심 걱정된다) 진우가 대체 어찌됐는데요?

순애 빨갱이란다.

우현 예??

49. 우현 사무실안/ 아침

순애 전단지 돌리고, 파출소란 파출소는 모두 찾아 돌아 보고. 혹시나 해서 시체
공사소까지 뒤졌다카이. 그러다가 김주열이 생각나더라. 그 4.19때 최루탄 맞고 죽은
애 말이다. 그래서 한 달 반을 바닷가로 찾았더니는데... 이제 저녁때 이게 왔다.

통지서를 우현에게 건넨다.

우현 (통지서를 읽어보더니) 재판 통지서네예. 진우가 부산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재판은 모래?

순애 내 진우 좀 볼리카는데..., 면회를 안 시켜준다. 원래 법이 그렇다매?

우현 무신 소립니까? 보호자의 접견권 방해는 위법입니다.

순애 (귀가 반짝) 그럼 나랑 가면 진우 볼 수 있나?

그때 사무장 들어오다 우현과 순애 앉아 있는 거 본다. 진우 사건임을 직감하는 사무장.

사무장 아! 진우 어머님이시네요. 잘지내시지요?

사무장 그러나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헹해진 순애의 얼굴을 보고 깨닫는다. 얼굴에 띄운 가식적
미소도 곧 사라지고 마는 사무장.

사무장 회장님이 룸테 호텔서 점심 먹잔다.

순애 야. 나 나 좀 도와주레이. 나도 알잖노. 우리 진우 빨갱이 아니데이. 우리 진우...
빨갱이 아닌데... (울컥 하다 이금나 꽉 깨물며 참는다) 빨갱이란다. 나가... 아니
변호사님이 가가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번 일만 도와주믄 내 베노사님 집에
가서 죽을 때까지 식모라도 할게. 나 좀 도와주레이. 나 좀 도와줘.

사무장 큼 큼 (헛기침 하며... 눈치) 늦어도 열한시에는 나가야하는데...

순애 (사무장 매섭게 노려보며 대체 어디서 그런 짜렁짜렁한 소리가 나온지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지금 내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는 거 안보이소?

사무장 놀래서 움찔한다. 우현도 난감한 표정. 시계를 보니 10시 5분이다.

우현	(순에게) 이파 오후에 가면 안되겠습니까?
순애	(울듯한 표정과 목소리로 짜내듯) 내 오늘로 57일째 못봤데이... 변호사님아 내 좀 도와줘. 내 아는 사람 중에 나가 젤루 높은 사람이데이. 내 이리 빈다. (우현의 바짓단 잡으며 주저 앉더니 진짜 손으로 빈다)
우현	(한숨 내쉰다. 하지만 결심) 사무장님 내 친우 어무이 모시고 구치소 좀 갔다 오겠습 니더. 죄송하지만 점심 식사는 다른 날로 좀 잡아달라 부탁 좀 해주이소.
순애	(자옥에서 만난 부처님 놓힐까 싶은 표정으로 손 꼬옥 붙잡고) 고맙대이. 고맙대이

우현 순애랑 같이 나가려하자

사무장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봐 노변.

우현 (사무장의 깊은 우려 담긴 표정 보고는) 접견 하는 것만 도와드릴게요.

사무장 (나지막히 목소리로) 오늘 신문 봤니? 부림 사건이라고 전우 거기 암었다. 엮이지 말그래야.

우현 (나가다 멈춘다) 부림사건이요? 사무장님 그럼 진우건 알고 계셨어요?

사무장 엮일까봐. 얘기 안했다. 다녀오그래이. 내 국밥집 맛있는 데는 따로 알아볼게.

우현 원가 얘기하려다가 순애가 잡아끌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무장 바라보다가 나간다.

50. 부산 구치소 접견 신청서/ 오전

우현	(흥분해서 따지고 있다) 접견권 방해는 위법이건 모릅니까? 이 늄의 구치소는 형법 위에 있고 헌법 위에 있습니까? 여 구치소에 당신네들하고 구치소장이 들어가게 생겼네
교도관1	아. 참~! 일반 접견실 수리중이라니까요.
우현	그럼 특별 접견실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기도 수리 중입니까?

교도관1 난감한 표정으로 접견 신청소 안쪽 바라보자...

—구치소 접견 신청소 안쪽

교도관2 저희 다 고소하겠다고 난리 법석 막무가냅니다. 예 피의자 엄마랑 둘만 왔습니다.

51. 부산지방검찰청 강 검사 집무실/ 오전

전화받던 보좌관 바로 옆의 강검사에게 보고한다.

보좌관 김광삼, 이상록쪽이 아니라 피의자 모친이 섭외한 모양입니다.
강검사 누구래?
보좌관 (전화기에 대고) 그 번호인 이름이 뭐니까?

52. 부산 구치소 접견 신청소/ 오전

교도관2 뒤로 펄펄 뛰며 항의하고 있는 우현과 어쩔 줄 몰라하는 교도관1 보이는 가운데...

교도관 (멍함 보며 설명) 세금 전문 변호사 노우현.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이리 돼있네요. (뭐라 듣고는) 예. 알겠십니다. (우현과 싸우는 교도관에게 통과시켜
도 된다고 OK 시인하다.)

53. 부산 구치소 특별 접견실/ 오전

순애는 마치 굳어버린 듯 접견실 철문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끼이익- 접견실 철문이 열리면서 질 푸른 재소복의 진우가 들어온다. 혼자서 걷지 못하고 교도관 둘이 부축해서 데리고 온다. 바짝 마르고 초췌해진 모습. 하지만 그 이상 부서진 느낌이다.

뭔가 놓아버린 듯... 겁에 질린 어린 아이같은 모습이 진우를 지배하고 있다. 순애는 뭔가 가슴속에서 맷쳐 터지듯 딸꾹질 같은 “허흡” 하는 외마디 비명같은 걸 지르지만 의자에서 일어나 진우가 의자에 앉을 때까지 끔찍도 못하고 지켜볼 뿐이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쳐다보는데도... 고개조차 쳐들지도 못하고 교도관들이 의자에 앉하자 그대로 고개 숙이 채 전경식 바닥 위만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친우다.

훈사 심각한 정서불안화자 같은 진우. 그러나 우현이 수첩과 펜을 꺼내 책상위에 올려놓자.

전우 (펜을 낚아 채듯 집어 들더니 부들부들 떨며) 뭐라고 적을까에? 적으라는 거 다 적겠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나오자 순애는 진우를 봇쳐다보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눈 감은채 울음을 참는 듯 하고... 우현도 이런 상황은 난생 처음을 당해보는 지라 답답하고 당황스럽다.

우현 (당황하는) 진우야. 진정해라. 진우야.
진우 형용사 빼고, 동사 명사로만... (강박적으로 중일중일) 이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동사 명사 육하원칙... 동사 명사 육하원칙...

망연자실한 채 진우를 바라보던 우현. 진우가 계속 눈도 못마주친 채 정신 못차리자... 우현 진우 어깨를 잡고, 그래도 안되자 얼굴을 직접 잡고 자신을 쳐다보게 하려해도 진우는 눈동자를 못미주친다.

우현 진우야. 진우야. 아재다. 내를 봐라. 내를 봐! 진우야

잠시 그런 소강 상태로 있다가 진우 슬쩍 눈치 보듯 눈알 돌리다가 우현을 본다. ‘아는 사람이다.’ 싶은 표정. 안도감과 함께 정신이 돌아오는 진우. 진우 슬쩍 눈동자를 더 돌리자 엄마 순애가 바라보고 있다. 그제야 쌓이고 쌓였던 긴장이 풀리는 진우.

진우 엄마? 엄마! (눈물 터진다) 엄...마, 엄...마... 엄 아 엄 아

어금니 꽉 깨물며 버티던 순애. 지우가 그렇게 물너지자 복는점으로 품에 안다

진우가 껴안는 풍에 진우가 자신을 보지 못하자 그제야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니 소리는 내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한다. 무현도 교도관도 어쩌고 할 도리가 없이 두 모자의 통곡과 눈물에 접견실을 지배당하고 만다. 그런데... 통곡하던 순애가 원기를 느낀다. 품에 안은 진우의 몸이 견디질 못하고 아파하는 걸 느끼 거

순애 와 그라노? 나 이디 아프나? (진우의 몸을 만지다 진우가 아파하자 상처라도 보려고 옷을 제자는데)

순애도 우현도 온몸 군데군데에 퍼린 멍자욱과 짓이겨지고 짓이겨져 보라색으로 변한 때 맞은 자욱 발견한다.
순애 그걸 보고 반쯤 돌아버린다

순애 누가 이랬노? 우리 전우 누가 이랬노? 야 이 놈아 니가 이랬노? 이 쫓아 죽일 놈아.
니가 그랬지

순애는 교도관이 제지하려 오자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마구 덤빈다. 악으로 깡으로 덤벼드는 순애에게 30대 남자 교도관이 당하지 못하고 맞고 할퀴고 머리카락 잡혀 돌림 당하고 난리도 아니다. 우현도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속에서 뭔가가 끊어오른다. 순애가 교도관을 살대로 학과 복을 풀며 날리치는 사이

우현 진우야. 이거 뭐니? 진우야 너 고문당했니? 진우야!
진우 (순애를 알리려 일어서보려 하지만 갑작스런 만남과 북새통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쇼크가 온 듯 부들부들 떨다가 우현의 계속되는 질문에 시정없이 고개 끄덕이기)

우현 병한 표정으로 일어선다. 그 역시 말로는 들었으나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던 것.
(이하 고속 촬영, 슬로우, 입술 움직임은 보이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집견실 안으로 교도관 넷이 뛰어들어와 순애를 거칠게 떼어내 집어던지듯 밀어 제친다. 진우가 “엄마!”라는 소릴 비명처럼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덤벼들지만 어림도 없다.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만다.

순애 (이금나 꽉 깨물며) 이놈들아 내 아들 놔라. 이 놈들...

순애 자신을 잡은 교도관의 손을 깨물고 진우를 잡은 교도관들에게 다시 덤벼들지만 다시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해 밀쳐진다. 교도관들은 진우를 넘어진 히수이비 일으켜 세워 끌고가듯 데려가 버리고 순애 아들을 되찾겠다고 다시 교도관들에게 덤벼들어보지만... 갑자기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하아하악 하더니 까무라쳐버린다.

우현 이... 야지매요. 야지매! (순애를 안아들고 외친다) 병원! 구급차 불러. 구급차

우현도 이젠 절규하듯 소리치지만 그 소리는 관객에게 들리진 않는다.

54. 김광삼 사무실/ 오후

문을 박차고 들어와 김광삼에게 화를 버럭 내듯 묻는다-

우현 그 부림 사건이란 거 그거 뭡니까? 대체 진우 죄목이 뭡니까?

김광삼 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하는 표정으로 우현을 바라보다가...

55. 도로 위/ 오후

부산 시내를 운전해서 가는 우현의 표정 클로즈업.

(V.O) 김광삼 : 두 달쯤 전 공안부 형사들이 22명의 학생들하고 일부 시민들을 체포했어.
죄목은 아직 표현물이 담긴 불온서적을 읽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했다는 거.
이게 그 아직 표현물이 담긴 불온 서적들이네.

빨간 불에 멍취선 우현 옆 조수석에 쌓여있는 책들 훌핏 본다. 우현 POV로 ‘역사란 무엇인가(E. H 카)’ ,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 ‘우상과 이성(리영희)’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 ‘광장(최인훈)’ 등 책 보인다. 파란 불로 끓기자 우현 다시 차를 움직인다. 우현의 얼굴 위로 오갔던 대화 흐른다.

(V.O) 노우현 : 책 읽었다고 잡아갔다고요?

(V.O) 김광삼 : 그래 일단 그걸 빌미로 잡아들인 뒤에 취조를 통해 죄를 만든거지.

Flash Back

(V.O) 진우 변호사라면 다 읽어봤을 그런 책이지에.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미소 지으며) 책에서 읽었어예~

56. 해운대 아파트/ 저녁

우현 들어와 옷 갈아입는데 수경이 옷 받아 장롱에 거는 등 도와주며

수경 해동 변호사 되면, 서울로 올라가지에? 서울 올라가면 우리도 잠실로 갈까에?
서울 강남땅은 많이 올랐는데 잠실은 아직이라카네요. 그다가 올림픽 열리믄 강남 못지
않게 집값이고 땅값이고 많이 오른답니다.

우현 그런 소리는 누구한테 그래 들었나?

수경 사무장님이 그런던데요. 서울로 안가겠냐고~ 아 참! 그리고 글피 점심으로 해동 회장님
약속 옮겨잡았다고 꼬옥 알려주라 했서에. (웃 쟁기다가 책들 보곤) 이건 뭐예요?

우현 응? 읽을 책들...

57. 우현의 아파트 서재/ 밤

책상 위 스탠드 불만 커져 있고 그 책상 위에 책들이 쌓여있다. 어둠 속에서 책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우현 의자를 당겨 책상앞으로 와 맨 위의 책을 집는다. '역사란 무엇인가(E. H 카)'

/ 거실로 나온 수경, 괜증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반이다. 우현의 서재를 조용히 열어본다. 책읽고 있는 우현의 뒷모습 보인다.

수경 (문 꾹꼼히 열리고) 안주무세요? (우현의 대답이 없자) 커피 타다 드릴까에?

그제서야 우현 고개 돌리고 수경 바라본다. 그리곤 필요없다고 고개 흔든다. 수경 잠시 우현 보다가 '잘게요' 하고 입모양으로 얘기하곤 문 닫는다. 다시 책 읽기 시작하는 우현...

/ 괘증시계가 다섯 번을 친다. 우현의 왼편에 놓였던 책들이 우현의 오른편으로 옮겨져 있다.
우현 마지막 책의 마지막장을 덮고 오른 편에 쌓아놓은 책더미 위에 그 책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을 옮려놓는다. 그리고 잠시 그렇게 앉아있던 우현, 우현 일어나서 밤을 나온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잔에 따르고는 쉬지 않고 한 컵을 다 마신다

/그리고 아이들 방문을 열어본다. 수경이 아이들 방에 와서 자고 있다. 진우와 연우가 새근새근 엄마 펠베개를 하고 자고 있다.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잠이 들었는지 아이들의 머리맡에는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책이 펼쳐져 있다. 아이들 자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기만 하던 우현. 그러다가 낮에 본 광경과 아이들이 오버랩 되어 보이는지 감정이 복잡해지는 표정이다

/베란다로 나오는 무현, 푸르스름한 새벽의 해운대가 보이고 뚱뚱은 이미 불은 기가 돌기 시작하다

58. 김광삼 집 앞/ 새벽

아직은 어스름한 이른 새벽, 김광삼이 잠 덜 깨 표점으로 눈 비비며 대문 열고 나온다.

우현이 골목에 서 있다 놀라는 깃광삼

김광삼	(시계를 보려는데 두고 나왔다) 대체 지금 몇시고?
우현	부럼 그거요. 진짜 빨갱이 짓 안했습니까? 비밀조직, 북한자령 그런 거 다 뭡니까?
김광삼	(상황을 눈치챈다. 잠이 깬다) 진우라 캤지? 자네 단골집 아들이라는 학생.
우현	예.
김광삼	그래... 빨갱이 같던가?
우현	(대답 못한다. 그러다 울컥)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버럭) 그러면 안되는 거죠.
김광삼	(고개 끄덕이며) 그래. 그럼 안되는 거지.
우현	(악몽이라도 털어내려는 듯 고개 절레절레 흔들다가) 할게요. 번호인. (김광삼 쳐다보며) 하겠습니다.
김광삼	(그러나 얼굴 표정 한번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노번. 날 밤 산 모양인데... 가서 자고 나중에 얘기 하세. 이런 사건은 웬만한 각오로 덤벼선 택도 안된다. 일시적 감정으로 덤벼서도 안되고...
우현	그럼 그저께 저는 왜 찾아오셨었어요?
김광삼	그땐 너무 급해서 자네 이름으로 재판 연기 신청만 하고 제대로 된 번호사 구할려구 그랬네.
우현	지도 제대로 된 번호입니다.
김광삼	그 뜻은 아닌데... 여보게 노번. 자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웬만한 각오 없이는
우현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우 번호인 하겠다고

김광삼 중간에 포기하면 자네나 진우나 다 불행해져.
우현 포기 안합니다. 절대 포기 안합니다.

진지하게 우현을 쳐다보는 김광삼.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김광삼 변호사 쳐다보는 우현 두 남자가 마치 기싸움이라도 하듯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다. 이윽고...

김광삼 점심때 내 사무실에서 변호인들 상견례 겸 미팅 있네. 맘 안바뀐다면 내 사무실에서 10시에 보세. 가서 좀 자고...

(보좌관 V.O) 변호인단 정해졌답니다.

59. 강검사 집무실/ 오전

강 검사 누구 누군데?
보좌관 박병호, 유정혁, 노우현이랍니다.
강 검사 노우현?
보좌관 그 진우라는 애 어머니가 선임한 변호사요. 왜... 그 접견와서 행패 부렸다는 그 새금 변호사 말입니다.
검사장 새금 변호사? (듣고 있다가 자르며 나온다) 뭐 잘됐네. 피의자들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보기도 좋고 편할 수도 있어. 부산법원장은 이석주 부장판사가 제일 낫다고 추천해와서 이석주가 배정됐어. 내 만나고 왔는데. 잘 해줄거야.
강 검사 예 감사합니다.
검사장 부산 온 김에 회나 한 접시 먹고 올라갈까 싶은데 어디 잘하는 데 있나? 참...
 그 차경감도 부르고... 점심은 내 살테니까.
강검사 예~

60. 김광삼 변호사 사무실/ 오전

박병호, 유정혁, 노우현, 김광삼, 이상록 변호사 총 5명이 사무실에 들어와 있다. 김광삼 변호사가 우현을 소개시키고 있는데 박병호 변호사가 겨우뚱 하더니 아는 체를 한다.

박병호 아니 노변이 어길 봐? 노변도 정치가 목표야?
김광삼 예면 사람 잡지말고 앉으시다. (사건 서류 내놓으며) 이게 사건 서류이야. 중요 증거는 박진우군 자필 진술서고... 이건 모임 등에서 읽은 책 불온서적이라는 김별 편가서.
박병호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안법 사건은 진술서가 유일한 증거물이니 검찰측에선 이 진술서

우현 물고 늘어질 수 밖을 겁니다. 그러니 진술서내의 앞 뒤 모순 등을 최대한 발굴해서..
(말 자르며) 진우 몸에서 고문 혼적들을 봤습니다.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이고, 고문에
의한 진술서라면 이에 증거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박병호 (말 잘려 기분이 좀 얹짢지만) 고문에 의한 진술서... 뭐 법대로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지.

우현 법대로라면 이라뇨?

박병호 법대로라면 말이야... 현직 대통령부터 구속해야지. 군사 반란 및 내란죄로...

61. 바닷가 보이는 횟집/ 점심

검사장 (소주 한잔 마시곤 강 검사에게 그 잔 건네며) 지난 박대통령께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나?

강 검사 그거야 뭐 김재..

검사장 (말 자르며) 김재규는 개를. 박통 그렇게 간 거.. 여기 부산 놈들 데모 막지 못해서야 부마 사태만 막았어도 나라가 이꼴 되진 않았어.

강 검사 이꼴이라면...?

검사장 군인들이 민간인 죄 죽이는 게 제대로 된 나란 아니잖아? 네 아들, 지금 미국에서 유학중인데 작년 5월 이후부턴 쪽팔려서 쪽팔이 일본인 행세하고 다닌대.

강 검사 아... 예.

검사장 자네 그 얘기 들었어? 하마터면 광주상태가 아니라 부산상태가 될 뻔한 거. 차경감은 나하고 같이 들었지?

차경감 예.

검사장 보안사 대령이 그러더라고. 사실 부마 사태도 있고해서 부산 준비했다가 광주에서 뒷통수 맞은 거라고. (급진자) 이봐~ 이번에 부산 운동권 애들 초토화 시켜서 이에 썩 자체가 자랄 수 없도록 해야돼. 나라를 구하고 부산을 구한다는 각오로 담벼.

강 검사 예 검사장님.

62. 우현 사무실/ 저녁

우현 들어오자 사무장 반갑게 맞이하며 호들갑떤다.

사무장 성공보수는 면세 세액의 15%나 준다카더라. 참. 진우는 어떻드나? 애가 안됐어.
어쩌다가... 애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우현 내 말기로 했어요. 진우 변호사.

사무장 (안색이 썩 변한다) 뭐? 뭐라꼬? 내일이 계약이다. 지금 이 중요한 계약 앞두고 미쳤나?

그 변호를 맡으면 우짜노?
우현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사무장 (정색하며) 안된다. 그만 둘라. 그거. 돈도 안되고...
우현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장 그래. 그런 사건은 돈을 바리바리 써들고 와도 맡아선 안되다는거다. 그런 사건 밀었다
찍히면... 이 장사도 끝이대야. 그만둬라.
우현 해동 건 하곤 안부딪치게 할게요.
사무장 노번. 나 내 처음 뽑을 때... 내 보고 브레이크 걸어달라겠지. 내 지금 그 때 노번이
부탁한 브레이크 거는 기다. 내가 맛있는 국밥집 수배해 올테니 여기서 그만둬.
우현 하기로 했다니까요.
사무장 노번! 악셀이 바로 옆에 있어. 지금 그거 밟고 달려야 되는 거야. 왜 스스로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아? 미쳤어?
우현 진우 연우 커서 사는 세상은 이런 이堕구니 없는 일로 브레이크 걸리지 않게하려구요.
사무장님 아들 병국이도 이런 세상에 살게 하지 않으려구요.
사무장 우리 아들은 걱정하지마. 병국이는 데모 못하게 할 거야.
우현 데모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야죠. 사무장님.

자막- 공판 1일 차.

63. 부산지방법원 판사실 복도/ 오전

우현 짐을 바리바리 들고 좀 늦게... 뛰어 들어온다. 이미 와있던 박변호사와 유변호사 우현과 눈이 마주치자 눈 인사와 목례 인사만 하곤 자기들끼리 다시 얘기중이다. 우현 외톨이 느낌. 그때 복도를 돌아 보좌관들과 오는 강검사. 박변, 유변 등 변호인단들과 아는 체를 하며 악수를 주고 받는다. 그리고 우현에게도 다 가온다. 우현에게 손 내밀며 악수 청한다. 하지만 우현 손을 받지 않는다. 강검사 “이건 뭐야?” 하는 기분 나쁜 표정.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힌다. 그러는 사이 강검사 보좌관 판사실 문을 열어준다. 강검사 우현 짜려보고 들어간다.

64. 부산지방법원 판사실/ 오후

종요 재판 앞둔 것 같지 않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판사는 편하게 검사와 변호인단 맞이한다.

판사 (가장 먼저 강 검사에게 악수 청하며) 잘 지냈나? 검사장님하고 전화했네.
조만간 필드에서 보자고 전해주개나
강 검사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판사 (박변, 유변과 악수한 뒤 우현에게도 악수 청하며) 노변호사는 분야가 분야라 재판장에서 만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

우현 (엷게 웃는다)

판사 관례상 일단 이렇게 변호인측, 검사측 얼굴 한번 본 거고 아다시피... 세상 관심이 많은 중차대한 사건이라 법정에 기자들이 그득합니다. 특별히 신중히 발언해주시고. 그럼 좀 있다 재판장에서 봅시다.

변호인단 검사 나가고 마지막으로 우현도 가볍게 묵례하며 밖으로 나가려는데-

판사 노 변호사

우현 (나가려다 등을 돌려서) 네.

판사 (웃으며) 해동 건설에서 스카웃 왔다며. 그런 중요한 제안 앞두고 뭐하러 뺨갱이들 변호하니? 누구 친척 있나? 누군지 얘기해주면 내 신경 좀 더 쓸세.

우현 ? (머릿속, 한 순간에 텅 비어버리는)

나가던 강 검사, 얘기 다 들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얼굴에 미소가 스친다.

65. 형사법정 / 오후

재소복 입은 진우 및 피의자들 일부 포승줄에 묶여 들어선다. 방청석의 순애, 아들의 초췌한 모습에 슬픔이 울컥 치민다. 피의자들은 서 있고 피의자들 제외한 모든 사람이 착석하자 판사가 개회를 알린다.

판사 사건번호 1981고단7429 부산지법 제 1형사 단독부 공판을 시작....

판사가 운을 떼는데 우현이 말을 땡강 자른다.

우현 (일어서서) 이의 있습니다.

판사 (어처구니없는) 변호인. 아직 재판 시작도 안했습니다.

박변호사 (황당한 표정) 이봐 (우현 소맷자락 끌어당기며 앉히려는데...)

우현 (무시하며)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재기하는 겁니다.

판사 (짜증과 노여움 섞여) 만약 합당한 이의제기가 아니면 변호인이 재판진행을 방해했다는 사실 기억해 둘 겁니다.

어디 한번 밀해보라는 듯, 판결봉 내려놓고 노려보는 판사.

우현 피의자를 속박하고 있는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 주십시오.

판사 (웃음) 변호인이 형사사건을 해보지 않아서 그려는 모양인데... 저거 법정관행이요.
그럼 재판을 속개...

우현 형사소송법 제 280조를 보면, 공판장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주기를 요청합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박변호사도 '나도 이 뜰아이는 오늘 첨봐요' 하는 눈짓 주고는 판데 본다.
아랑곳하지 않는 우현. 더욱 분명하고 또렷한 어조로-

우현 그것에 더해...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이 재판을 앞아서 받을 수 있도록 의자를
준비해주시길 요청합니다.

판사 (눈살 짜푸리며) 내가 방금 법정관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현 형사소송법 제 275조 제 3항을 보면, 피고인은 재판시작 전에 좌석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

우현 법률이 정한 대로 속히 피고소인에게 가한 속박을 풀어주시고 의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노변호사. 자꾸 이렇게 재판진행 방해할 겁니까?

우현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소인을 재판 시작 전부터 죄인 취급
하는 그 어떤 법정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변호인과 판사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우현, 쪘기 박는다.

우현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그것을 기리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일부러 강조하며 덧붙이는) 존경하는 판사님!

짜증과 고풍스러움이 뒤섞인 판사의 얼굴. 진우를 비롯한 피의자들 변호인단석의 우현을 쳐다본다.

-시간경과

진우를 비롯한 피의자들 수갑과 포승줄 풀고 의자에 앉아있다. 검사와 판사 표정 불편한 가운데...

판사 검사측 공소사실 진술 하세요.

강 검사 (앞으로 걸어 나오며) 1981년 3월 8일 아래 피고 박진우는 독서모임으로 가장한
일명 좋은 책 읽기 모임에서 총 13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모임의
실체는 불온서적을 돌려 읽고, 반정부를 시위를 조직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선전물
을 작성하는 불법 아직 단체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피고 박진우군은 자필 진술서에 그

모든 내용을 적었습니다.

강 검사, 테이블에서 진술서를 집는다.

강 검사 피고 박진우군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몇 군데 인용하겠습니다. 월남은 폐망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된 것이다. 우리도 그러한 길을 밟아야 한다. 지금의 목표는 파쇼 정권 타도이지만 장차, 우리의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민족해방에 있다.

강 검사, 원본 진술서를 재판장에게 건넨다. 진무의 지문 날인을 확인하는 재판장.

판사 피고인, 피고인은 이 진술서를 직접 작성한 게 맞지요?
우현 (벌떡 일어나) 그 진술서는 고문과 강요...
판사 (桴桴 두드리며 말 자른다) 변호인에게 안물었어요. 지금 피고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피고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피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맞아요?
진우 (짧게) 네.
판사 진술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한 거 맞죠?
진우 (짧게) 네.
판사 진술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측 변호인... 공소사실에 변론요지 발언하세요.

박변호사 이제 내 차례구나 하는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서려는데 우현 어느새 벌떡 일어난다. 박변 이게 뭐지? 당황하는 표정이지만... 우현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낸다.

우현 박진우 피고인은... 피고인이라는 말이 입에 불질 않네. 왜냐하면 박진우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입니다. 검찰측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좋은 책 읽기 모임은 그냥 독서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책상 돈 모자란 학생들이 책 돌려보고 그걸 토론하고, 기특하게 읽고 배운 바를 야학을 통해 나누려 했던 장려해야될 모임입니다.
그리고 불온서적이라고요?

우현이 변호인석에서 일어난다. 가방에서 책 한권을 꺼내더니 판사와 방청객에게 보인다.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

우현 이 책은 오늘 아침 서점에서 사가지고 온 책입니다. 시중에서 자유로이 판매되는 이 책은 서울대에서 권장도서로 추천했었습니다. 이 책이 불온 서적이면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데가 불온 단체란 얘기 아닙니까?
강 검사 불온서적 판정 여부에 관련해서는 증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판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변호인 증거 검증은 그때 하세요. 할 말 다 끝났지요?

우현	(버럭) 아직 말았습니다!
판사	(황당한)
우현	피고는 검찰이 주장하는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림 사건은 애초부터 부산지역 학생운동을 초토화시킬 계획으로 정권과 정보기관이 협작한 공작입니다.
	사건은 없고 오로지 조직만 있는
강 검사	(벌떡 일어나) 변호인은 선동적인 발언으로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판사	서기는 지금 발언은 삭제하세요. 변호인! 경고합니다. 더 이상은 재판 진행 방해하지 마시오. 재판은 점심 시간 휴정후 재개합니다.

방청석 사람들 나가는데 박변호사 화난듯한 표정으로 우현에게

박변 이이 노변. 나 좀 보지.

66. 법원 뒤풀/ 정오무렵

박변	이봐 노번. 국보법 사건 처음이지?
우현	그렇십니다.
박변	(순순히 인정하자 화를 침고 달래듯) 이봐 노번. 나도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공안 사건 맡았던 검사출신이야. 국보법 사건의 본질은 형량 싸움이야. 유무죄 싸움이 아니라고 그런데 판사를 건드리면 어떡하나?
우현	박변호사님.
박변	응.
우현	박변호사님은 저 학생들이 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박변	(허리를 펼친 듯) 그..그건
우현	박변호사님. 저는 최소한 제가 맡은 박진우군만이라도 저들이 주장하는 그런 죄는 없다 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선을 다해서 무죄 확정 받아 내려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박변	...
우현	박변호사님. 박변호사님은 만약을 대비해 형량 싸움 해주십시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 소신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리며 법정쪽으로 들어가는 우현, 한방 맞은 듯한 박변 표정 묘하다.

67. 형사법정 / 오후

증인석에 앉아있는 40대 후반의 남자.

강 검사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주세요.
김정인 내외정책연구소 연구원 엄태남이라고 합니다.
강 검사 내외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주업무는 무엇입니까?
김정인 불온서적 김정 기관입니다.

자신의 테이블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오는 강 검사.

강 검사 '이에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은 (김정서 읽는다) 공산주의자이자 역사가인 저자가 주저한 책으로, 일반학생,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혁명과 체제를 타당시하는 역사관과 그 사고방식을 포지케 할 위험성이 있는 불온 책자임. 따라서 본서를 소장, 학습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학습에 관심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함. 증인이 속한 김정 기관이 김정한 사함이 맞습니까?
김정인 맞습니다.
강 검사 (판사를 보며) 이상입니다.
판사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우현 내가 해도 되겠죠? 하는 표정으로 박변 슬쩍 쳐다보자 박변 맘대로 해보세요 하는 표정과 몸짓한다.
증인석 앞으로 걸어 나오는 우현. 증인을 훌깃 보더니~

우현 (불쑥) 연구소 사무실이 어디니까?
김정인 네?
우현 위치 말입니다. 사무실 위치.
김정인 서울 용산구에 있습니다.
우현 몇 번집니까?
김정이 글쎄요. 잘 생각나질 않네요.
우현 그려는 주위에 유명한 건물은 뭐가 있는고? 용산이라카면 용산역이나, 미군 부대나...
뭐 유명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판사 변호인. 나도 법원 주소는 정확히 몰라요. 재판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있어요. 반대신문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방청석에서 실소가 들린다. 아랑곳하지 않는 우현.

우현 알겠십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또박또박) 서울 용산구 남영동 구팔 다시 풀. 맞지요?
김정인 (미웃)

우현	주소는 잘 모른다겠으니 이건 어떻습니까? 거가 남영동 안기부 건물, 맞지요?
감정인	(대답을 못하고 갈등하는)
우현	남영동 안기부하고 같은 건물에 있고 같은 문으로 다니는 거 맞지요?
감정인	아닙니다... 다른 문으로 다닙니다.

방정석에서 크게 실소하는 소리 들리고-

우현	안기부에서 이건 빨갱이 혐의다라고 쓰리카문 혐도 안 읽어보고 감정서 쓰는 거 아입니까?
강 검사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추측에 의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우현	증인(불온 서적 감정서 들어보이며)은 여기서 이에치 카가 공산주의자라고 했지요?
감정이	그렇습니다. 조사해보니 소련에서 살았고...
우현	그래요? 확실합니까? 소련 빨갱이
감정인	(주저) 예. 소련에 상당기간 살았습니다.
우현	맞십니다. 소련에 살기는 살았었습니다. 근데요. 뭐로 왜 소련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에치 카는 625때 우릴 위해 참전한 무방 영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소련엔 영국대사로 파견 나갔던 겁니다.
감정인	(당황하는)

감정인이 어쩔 줄 몰라 하자, 강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강 검사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판사 변호인,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해 주세오

우현. 그러자 자리에서 영국대사관에서 보내 문서를 가지고 나온다

우현	이 문서는 영국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보낸 항의 공문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몰라가 존경하는 판사님이 좀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판사	(이걸 받아야 돼? 하는 표정으로 우현에게 받아서 살펴본다. 그리고 검사를 한번 째려보고 해석한다) 에드워드 카는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캐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뒷속까지 영국 사람으로 영국을 위해 헌신한 외교관이며 존경받는 역사학자 이십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책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현	마지막 문장도 해석해주십시오. 판사님.
판사	(난감) 아울러 '역사란 무엇인가?'가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지기 바랍니다.
우현	마지막 발신처도 읽어 주십시오.
판사	영국 외교부

우현 영국 외교부가 빨갱입니까? 서울대도 모리자리서 625때 우릴 위해 참전한 우방국 외교부도 빨갱입니까?

무현, 자기 자리로 가서 가방을 뒤집어 털털 텐다. 열권 정도의 책이 우르르 쌓아지고-

우현 본 번호인은 '역사란 무엇인가?' 를 포함해 피고인들이 읽었다는 불온서적 심여 권을 모조리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 영터리 불온서적 감정처럼 이 사건은 온통 영터리로 가득차 있습니다.

강검사 (표정 일그러지는)

방청석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하다. 번호인석으로 돌아가는 우현. 뒤에 앉아 있던 번호인단들. 우현의 뜻밖의 활약에 놀란 표정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광삼도 놀라는 표정

판사가 판결봉을 두드리며 첫날 재판을 마감한다. 강검사는 뛰쳐나가듯 나가고 우현은 번호인석으로 돌아온다. 그러자 유변이 일어서더니

유빈	(악수 건네며) 우리가 신뢰가 부족했네요.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록	(방청석에서 악수 건네며) 짧은 시간이었는데... 공부 많이 했네.
우현	(얼떨떨하다) 별말씀을요.

김광삼도 우현 어깨에 손 얹고 잘했다고 주먹을 쥐어보이자. 결국 박변도 마지막으로 운현에게 손 내미다

박병 승수율 90%라더니 역시 많이 이겨봐서 그런지 군선이 입네 노벼 승고해여

우현 돈이 아닌 돌로와 사람에게서 인정받는다는 느낌 받는다

68 부산지방법원 판/ 오피

강검사와 보좌관, 차동영 경감 등 법정에서 뛰어나온들 나온다

차동영 월니까? 저 놈. 무죄 입증하려고 뛰는 것 같은데요.
강검사 (냉소적으로) 무죄 입증은 개뿔? 돈만 벌다 심심하니까 정의 어찌구 하면서 풀 좀 잡아

보는 거지. 결국 송충이는 술잎 먹고 속물은 돈 따리가게 되있어요... (보좌관에게)
해동건설 세금건 알아와 봐. 해동건설 연락처하고
보좌관 예.

69. 해동건설 / 저녁

벽면 전체가 산업공로훈장과 트로피가 차지하고 있는 집무실. 부회장 맞은편에 우현, 사무장 앉아있고...
여비서가 들어와 계약서를 올려놓고 나간다.

부회장	성공보수는 면제되는 세액의 15% 드립니다. 그 정도 성공보수면 국세청에 뇌물로 뿐만 아니라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왜 노변호사님 쓰고 싶은지 알아요?
우현	그리 말씀하시니 궁금해지네요.
부회장	나도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법대로 원칙대로... 나도 세상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 잡은 저 사람들, 자기들 목숨 걸고 무고한 사람까지 죽여 가며 정권 잡은 사람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미국식, 영국식 민주주의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면 그러자고 할 것 같애요? 절대... 절대 못합니다.
우현
부회장	역사를 보면 저런 사람들 몰아낸 건 돈 있고 양식있는 부르주아들이에요. 민주화! 시민운동! 그거 다 부르주아가 이뤄낸 거에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부르주아 시민 혁명이 일어나려면 국민소득이 적어도 두 배 이상 올라야 되요.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노변호사님, 나 잠시 전에 전화 받았어요.

사무장 기작하다

부회장 노변호사님이 부림사건 변호하는 거 아느냐고? 알면서도 해동건설이 노변에게 변호사를 의뢰한 거냐고? 노변호사님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호의입니다. 지금 도장 찍으시면 우리 일만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 부림 사건인가 원가 계속 맡으실 거라면 계약은 없고 전 노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할 겁니다.

우현 쪽으로 계약서 미는 부회장. 계약서 바라보는 우현, 사무장은 미스코리아 미소 지으며 도장에 인주 묻혀 우현에게 내미는데...

우현 미안합니다. 부회장님. (우현 계약서 다시 부회장에게 내민다)
부회장 ...

우현 호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만난 적은 있다고 하이소. 근데 글마 돌아이라 일 못 맡기겠다고 하시면 물 겁니다. 저는 내일도 재판이 있어 나가봐야겠습니다. (나가려다가 멈추며) 참... 부회장님. 국민이 기난하다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건 전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사무장 안타까운 표정으로 우현 따라 나온다.

70. 부산 구치소 접견실 / 정오 무렵

우현	난 이 재판 말이다. 고문과 조작에 의한 진술서는 증거 효력이 없다는 거로 결론내서 너도.. 너랑 같이 공부한 그 애들도... 다 무죄판결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려면
진우	(두려운 표정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형들 말론 이미 다 끝난 게임이라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무기징역 안 받으면 다행이라고 그러던데요.
우현	(언성 높이며)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아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그 바위를 넘는다고... 니가 안 그랬나?
진우	(울먹) 그런 해 읽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현	(정색하며) 진우야! 포기하면 안된대이. 절대 포기하면 안된대이. 내일 너 증인으로 신청했다. 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와줘야 된대이. 고문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당한거니? 고문한 형사 얼굴.. 기억나나?
진우	(울먹기 없으며) 형사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고 전무, 과장이라고 불렸어야에. 차 전무님, 윤과장 뭐 이렇게요.
우현	차전무? 고문한 곳은 어디니? 경찰서? 검찰청?
진우	그런데 아닐 겁니다. 무슨 여관 건물 같았는데... 굉장히 낡은 건물이였어요.
우현	여관 건물? 위치는 아니?
진우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끌려가서... 하지만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뱃고동 소리도 들렸으니까 항구 근방 기찻길 가까운 템 겁니다.
우현	고문은... 어떻게 했니?
진우	(눈동자가 흔들린다)

71. 거리, 택시 / 늦은 오후

우현 택시를 잡아타며.

우현 기사님. 네 전세낼테니까... 부산 시내에서 기차길 가깝고 부두 가까운 데 다 됩시다.

cut to

부산 시내 곳곳을 다니는 무현 시선으로 보이는 차박 블사 모습들

cut to

택시에서 우현 내린다. 뒤에서 뿌양 뱃고동 소리 들려 돌아보자 컨테이너선박 지나가는 게 보이고, 기차소리 들려 쳐다보면 컨테이너 실은 기차들이 부두로 이동중이다. 주위를 살펴보는 우현. 우현의 눈에 삼일문화사로 문한 넓은 익판 건물 같은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72. 대공분실/ 우호

어둡고 축축한 복도가 우현의 시점으로 보인다. 과거 여관이던 걸 개조한터라 감옥처럼 측면마다 방이 배치된 구조가 보인다. 방 하나로 스윽 들어가 보는 우현. 차가운 바닥에 책상 하나와 육조 하나가 전부인 고문실. 사람을 떼리던 통통이와 전기고문에 쓴 자동차 빗데리도 보인다. 우현 그 섬뜩한 기운에 숨이 막힌다.

(V.O) 진우 ... 처음 며칠은 계속 둑드려 마기마 헤스티너

플래시매

몇 번 고문실에 진운과 고문현사들이 을렬처럼 드자하여 유흘 아래나 제후하고

젖은 물수건으로 감싼 봉동이로 형사 둘이 진우를 마구 내려친다. 지켜보던 차동영 손을 들자 두 형사 매질을 멈춘다. 차동영 마른 수건을 가지고 와 진우 양국의 눈물 콩을 치고 과로 달아준다.

차동영 예. 진우야. 우리 쉽게 가자. 왜 이렇게 힘들게 구니? 응? 넌 그냥 포섭돼서 세뇌된 거잖아. 넌 그렇게 큰 짓은 아니에요. 나한테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해. 그거야.

제가 그동안 여기, 아니예요. 내가 협조를 해온 것은 아닙니다.

학동역

차동역 간자기 짓을 머리해를 잡고 짚고 가니는 유풍에 짓을 하면 그 옆에

물속의 진우 얼굴이 일그러진다. 눈을 부릅뜨고 괴로워하는 진우. 벌려진 입안으로 수조의 물이 마구 들어온다.

간다. 파닥거리는 물고기처럼 반항하던 진우, 어느 순간 진우 숨이 넘어간 것처럼 온몸이 놀어진다. 진우 머리통을 누르고 있다. 진우가 그러자 재빨리 머리채를 들어 올리는 차동영. 진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데... 바닥에 널브러져 조금의 미동도 없는 진우 차동영 둘 열고 나와 음소에 브로디

차동영 윤과장 (버럭) 빨리 뛰어들이와! (윤소위 뛰어들어와 진우 죽은 듯 누워있는 거 보자
잠시 명해한다. 그러자 버럭 소리 지르며) 뭐해? 당신 할 일 해야지.

그제서야 정신 든 듯 윤 소위 심폐소생술을 한다.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잠시 후 진우가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하며 깨어난다. 윤 소위나 진우나 기진맥진한다.

현실의 우현, 어둠속에서 과거의 그 공간에서 혁혁대고 있는 윤 소위와 진우를 지켜보고 있다.
우현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려는 듯 다가가는데 진우의 눈동자가 월본 듯 놀란다. 뒤돌아보는 우현

-CUT TO, 현재 대공분실

그때- 돌아선 우현의 가슴팍에 구둣발이 날아든다. 나가떨어지는 우현.

차동영 (후레쉬로 우현 얼굴 비추고 우현 얼굴 밟로 밟으며) 이 새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우현 (발 흙 차우고 일어나다가 다시 한번 휙청하며 쓰러졌다 일어선다) 누구야? 너...
차동영 (정강이 후려친다. 우현 다시 푸고 꾸리진다) 야 이 새꺄야 난 도둑 난 순사. 내가
묻고 너가 답해야지. 나보고 누구리나? 웃기는 새꺄네 이거. (이느새 우현 자갑 끼내
살펴본다) 노우현 (신분증과 명함 끼내보고 있다)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우현 (절뚝거리며 일어나며) 나 박진우군 변호사요. 고문 현장 검사하러 온...
(차동영 바라는데 법정에서 본 기억이 난다) 당신이 차동영 경감...? 아니 여기서는
자 전무라고 부르나?
차동영 (발끈하지만 참는다) 변호사고 나발이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마. 당신 지금
불법 가택 침입죄야. 5초 줄테니 끼자면 체포는 면해주겠소. 5, 4, 3...
우현 당신 증언대에 세울 거야.
차동영 (파식 웃더니) 그러던가. 둘... 하나 반, 하나...

우현 절뚝거리며 나간다.

73. 형사법정 / 오전

자막- 공판 2회 차.

진우가 증인석에 앉아있다.

판사 변호인 즉 피고인 반대신문하세요.

우현, 박변과 유변에게 눈으로 자기가 나가도 되겠나고 묻자 박변 유변 고개 고덕인다. 우현이 절뚝거리며

증인석 앞으로 걸어 나온다.

우현	(진우를 빤히 바라보다가) 잡혀기기 전에 몸무게가 얼마였습니까?
진우	유.. 육십 구킬로요.
우현	지금은 몇킬로예요?
진우	유십 킬로쯤이요?
우현	2 달 상관에 구 킬로쯤 빠졌네요. 그 대공분실이란 데는 밥도 안줍니까?
진우	줄 때도 안 줄... 때도 있었습니다
검사	(일어나서) 이의 있습니다. 번호인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사	번호인 본론을 얘기하세요.
우현	다 필요해서 묻는 겁니다. 밥을 안 줄때는 언제고 그 이유는 뭡니까?

74. 대공분실 / 오후 (과거)

(V.0) 진우 한번은 전기고문 당하고 먹은 걸 다 토했더니 그 다음부턴 고문 받는 날에 밥을 안챙아요.

형사들이 차량용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을 합선시키자 스파크가 튀고 형사 하나가 진우의 겨드랑이에 전선을 접지하자 진우가 고통을 호소하며 발광을 한다. 몸 전체의 시퍼렇게 핏줄이 솟고, 열린 입안에서는 토사물이 끝없이 흘러내린다. 형사 한명이 그 토사를 뒤집어 쓰더니 더럽다고 짜증을 낸다.

한편 밖에서 그걸 보다가 죄책감에 고개 돌리는 윤 소위.

(V.0) 우현 가장 많이 당한 고문은 뭐니까?
(V.0) 진우 통닭구이라고 상처 없고 힘 안든다고 그걸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진우. 곡괭이 자루에 팔과 다리가 깨워진 채 통닭구이 자세로 매달려있다.
진우 너무 힘들자 토하는데 먹은 게 없어 침만 흐른다. 진우 너무 고통스러워 “저기요. 저기요” 하고 소리
지르자 문이 열리고 윤 소위가 들어선다. 진우 다시 우웩 우웩 헛구역질 하자 윤소위 진우의 팔다리를 풀어
준다.

윤 소위	학생, 거짓이라도 다 인정해. 이렇게 버티다 죽어.
진우	(신을 섞인) 그렇다고 하지 않은 거.... 모르는 거를 어떻게 적습니까?

난간한 표정의 윤 소위, 주머니에서 조그만 통 꺼내 진우 입에 대준다. 진우 받아먹다가 얼굴 찌푸린다.

진우 (빌컥 빌컥 다 마시고는 빤히 쳐다보며) 험도 저 사람들이랑 한패 아니에요?

윤 소위 (대답 못하고 철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진우 형 살려 주세요!

윤 소위 (발걸음 멈추는) !

진우 (울음 섞인 절박함으로) 제발...제발 살려 주이소!!

윤 소위 (두 눈 질끈 감고 문 닫는다)

텅- 육중한 소리내며 달하는 철문. 다시, 어둠에 갇히는 진우.

-시간경과

철문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면 차동영과 형사들 들어온다.

차동영 어이고. 얘 통닭 풀었다. 짜식... 많이 아팠나? 그래 이게 원래 아프다. 아프라고 하는건데 아파야지. (형사들 보고) 야 다시 매달아라.

다시 통닭구이 자세로 매달린 진우, 차동영이 그 앞에 앉아 물는다.

차동영 애야. 진우야. 너 1학년 애가 뭘 알겠나? 그냥 니 선배들이 시킨 거잖아. 하늘 같은 선배들이 책 읽히고... 뭐나? 그 의식화 교육도시키고 남한도 사회주의 혁명으로 다 뒤집어야 한다고... 그러는 데 니가 뭐 어찌겠어? 그런거 부다 했겠지. 자... 그렇게 너 괴셨다구 진술서에 쓰자. 응? 그러자~ (통닭구이에서 풀어주며 팬과 종이 네민다)
진우 (눈앞에 팬과 종이 네밀어자자) ...그, 그렇게 안했는데요. 그냥 우린 책 돌려 읽고

차동영, 인상 싸~악 굳어진다. 그러더니 직접 양동이에서 젖은 수건을 꾸집어 목검에 칭칭 감는다. 그 행동이 빠르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그러더니 검도 내려치기 자세로 쓰러진 진우를 힘껏 내려친다. 목검을 감고 있는 젖은 수건 덕분에 삼처를 내지 않은면서도 고통이 피부 깊이 전해진다.

차동영 아. 너희 같은 빨갱이들 말야. 휴전선에 데리고 가서 총살시키고 월북하려고 그랬다고 하면 나도 편하고 대한민국도 만세야 이 새끼야. 다 너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도와주려고 이러면 도움을 받아 이 새끼야. 넌 빠줄테니까 쓰라고...{거칠게 숨을 헐떡이며 다시 종이와 팬 내린다} 자, 다시 해보자.

하지만, 진우는 쓸게 없다는 의미로 고개를 가로젓는다. 암다문 입술에서 신음이 샌다.

확 열이 받친 차동영. 이 악물고 군홧발로 진우의 발을 으깨다.

군홧발을 때자 엄지발톱이 피범벅이 되어 피부껍데기 매달리듯 벗겨져 있다.

차동영 (뒤에 형사들 보고) 아 다시 매달아.

형사들 진우 들어다가 다시 통닭구이 시킨다.

75. 형사법정 / 오전

굳은 표정의 진우. 신발을 벗어 발을 보여주고 있다. 엄지발톱 하나가 없는 상태다. 방청석이 술렁인다. 순애는 눈을 감고 눈물을 참는지 고개를 돌린 채 있다. 차동영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려 한다.

판사 조용히 하세요. 소란 일으키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검사 지금 변호인은 증거 능력도 없는 쇼로 인민재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현 쇼~오? (강검사 손가락질하며) 이 영터리 쇼는 당신들이 시작한거다. 이 영터리 쇼에서 가장 영터리가 무언지 아니?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사람이 저기 (나가려는 차동영 가리키며) 있고 불법 납치, 강금, 폭행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다는 것이다.

방청석 사람들 웅성거리며 나가려는 차동영 바라본다.

검사 (발끈해서)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공권력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판사 (서기에게) 지금 변호인 발언 삭제하세요. 변호인 엄중 경고합니다.
우현 (굴하지 않는) 이 사건의 피고는 고문 형사와 조작 사건을 지휘한 검찰 그리고 군사 정권입니다. 피고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근 두달 동안 부산을 다 뛰이며 찾아 다녔습니다. 심지어 신원불명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두려운 마음을 안고 달려가기 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고문형사들이 피고인을 고문하느라 불법구금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사 (판결봉 두드리며) 땅!땅!땅! (소리지른다) 변호인 발언 중지하시오.
우현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높였던 양성 줄이며) 존경하는 판사님. 아직 제 반대신문 안끝났습니다. 피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게 해주십시오.
판사 (우현 노려보다) 마지막이요.
우현 감사합니다. (진우 향해) 57일이 넘는 구금 기간 동안 피고는 끝까지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왜나? 피고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적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검사 재판장님!
우현 (알았다는 듯 검사에게 손짓하며) 그러다가 57일 째 되는 날, 피고는 진술서를 작성했습 니다. 그 이유가 뭘니까?

말끝을 흐리더니 더 이상 말하기를 주저하는 잔우.

76. 대공분실 / 오후 (과거)

차가운 비단에서 눈을 뜨는 진우. 수염이 턱을 까맣게 덮고 있다. 철문이 열리고 차동영이 들어온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군용 나이프.

진우 (가슴 서늘해지는)

-시간경과

쓰윽쓰윽- 날카로운 칼날이 진우의 수염을 밀고 지나간다. 등 뒤에서 차동영이 거품 면도를 해주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 진우. 1도만 들어도 동맥을 끊어놓을 것 같은 칼날.

차동영 (수염을 빼며) 너 아버지가 없어서 면도하는 것도 못 배웠겠다. 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6.25 때 나 열세살 때. 난 아버지도 경찰이셨다. 근데 그 이유 단 하나로 끌갱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누나까지 다 죽였다. 그게 6.25였어. 어느 날 갑자기 처들여와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죄없는 사람들. 학살한 거... 그런데 너들은 그렇게 부른대매. (진우 목을 도는 칼날에 헝이 들어가자 진우 목에서 피가 베어나온다.) 민족 해방전쟁? 민족해방이라는 게 같은 민족 죽이는 거나? (언성 올라가며) 그 폐허속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릿고개 면하게 해주고 초기집 면하게 해줬더니 배폐기 두드리며 해 몇권 읽고 어디서 지랄들이야 이 새꺄야!

차동영 진우가 앉아있는 의자를 차버려 진우가 넘어지게 한다. 그 위로 의자 갖다 앉으며

차동영 6.25때 같았으면 빨갱이 가족도 즉결처분이야. 이 새끼야

진우 (눈동자에 두려움 차는)

차동영 1년에 실종되는 사람이 만 명이 넘어... 그 사람들 중에 빨갱이 아들 둔 아줌마 하나 쓸 끼어 넣는 게 어려울까?

17

진우 말을 하려는데 많은 물하고 텁과 잎근육만 움직이이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터지며 쉰 목소리로 애원한다.

자우 제발 그런지 마세요 (애월이 울부짖을때로 변하는)

차동영 (입 꼬리 올리는) 그러지 마? (파식 웃으며) 그러지 마까? 그래. 그러지 말자 뭐.

진술서만 작성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진술서 작성 할거니?
진우 (울며 고개 끄덕인다)

차동영 천천히 일어나 깔고앉은 의자 치워주자 바닥을 기어 종이와 볼펜을 잡는 진우. 미처 실성한 사람처럼 백지를 마구 채워 넣는다.

차동영 진작 그랬어야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육하원칙 따라서 써.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무엇을 했나? 형용사 부사는 빼고, 동사 명사로만.
그리고 너들 좋아하는 말들 있잖아. 주체사상, 사회주의 혁명 그런 단어도 좀 넣고...

77. 형사법정 / 오전

진우가 진술을 마친다. 순애는 어느새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피고인 가족들 사이에서 "고문 경찰 물려가라" 등의 외침 소리 들리고 소란스러워진다.

판사 (판결봉 두드리며) 정숙하세요. 정숙! 재판방해하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우현 (외치듯) 증거로 채택된 진술서는 위법하며, 악랄하고, 인간 이하의 방법으로 강제된 고문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사용되어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판사 다시 판결봉 두드리며 우현 노려보는데

우현 피고는 최종진술 해주십시오.
진우 제 진술서 때문에 진술서 내용하곤 아무 상관없는 선배들이 선배님들은 죄가 없습니다.
선배님들 구해주세요. (닭똥 같은 눈을 흘리며) 형들 미안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몇몇 선배들도 감정이 북받치는 듯...

선배1 괜찮아. 진우야
선배2 괜찮다. 진우야.

피의자석에 앉아있는 선배들 무는 진우를 위로하는 가운데...

우현 이것으로 박진우군의 심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고문을 주도했던 차동영 경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판사에게 증인 신청서 제출한다)

판사 우현이 제출한 차동영 증인 신청서 뒤적이다가 판사봉을 듣다.

판사 재판은 내일 속개합니다. 텡탕탕 (손으로 변호인단과 검찰총 부른다. 박변과 유변, 우현까지 나오자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어? 내 정상침작 할테니까 검찰이랑 구형량을 맞춰보자. (강검사 쳐다본다)

검사 (인상만 쓰고 있다. 긍정도 부정도 안한다)

박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검찰총과 논의

우현 (발끈, 정색하며) 박변호사님. 그리고 재판장님. 이 재판은 박진우군의 범죄유무를 밝히는 재판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에 관한 재판입니다. 차동영은 그 조작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구요. 반드시

검사 (우현 말자르며) 증인 체택 동의합니다. 내일 봅지요.

강검사 판사 향해 짧게 고개 끄덕이곤 노우현 노려보다가 나간다.

판사 (일어서서 나가며) 내일 봅시다.

78. 형사법정 밖/ 오후

강검사 나오자 차동영 슬쩍 와서 같이 걷는다.

강검사 저 새끼 정말 또라이네. 이 재판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야? 쌩... 나는 나대로 할테니 차경감도 알아서 할 거 하세요. (짜증나는 톤) 그리고 안기부는 대체 뭐하고 있대요? 나라 일 우리만 합니까? 양자 읊지 어찌구 떠들더니 이건 뭐 양자에서 뚱이나 치라는 거예요?

차동영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강검사 (걱정된다는 투로) 증언대 선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안했다고... 피의자가 자해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차동영 (고개 끄덕인다)

79. 법원 인근 식당 / 오후

노변, 김광삼, 박변, 유변 넷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언쟁이 불은 상태

박변 (윽하려다 참는 듯) 이봐 노변! 판사가 직접 양형 네고하란 식으로 얘기까지 끼냈어.
지금이 양형 네고할 가장 좋을 때야. 근데 그걸 차?

우현	(욱한다) 못합니다. 어떻게 변호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죄사건을 어떻게 양형 네고를 합니까? 재판 포기하고 저들 장단에 춤추자는 애깁니까? 저들의 청춘이 박변호사님 만한당 공천만한 가치도 없습니까?
박변	(드디어 욱한다) 이봐 노변! 노변 성질대로 그렇게 뻣대다가 이번 기회 놓치면 그래서 저 청춘들 감옥에서도 못살고 죽으면 어떡할거야? 1974년 인혁당 사건때 변호인들이 노숙거리서 그런 줄 알아? 그때도 지금이랑 같았어.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되서 만들어졌고 노변보다 더 똑똑하고 쌩쌩하고 의욕과잉인 변호인들이 최애~선을 다했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1/301 재판 끝나자마자 사형당했고 2/3가 무기징역 받았어. 우리 가 사람 살리자고 변호하는 거지. 쌩인 스트레스 풀려고 이 짓하는 거야? (일어나며) 김변호사님. 내가 아래서 의욕만 과잉인 초짜는 봐라고 그랬던 겁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실죠. (밖으로 나가버린다)

유변호사도 일어난다.

유법 저도 일어나보겠습니다. (박변 따라 나간다)

박변도 유변도 가버리자 우현 풀이 죽는다.

우현	지가 잘못한 겁니까?
김광삼	<p>아이다. 너 무신 잘못이 있겠나? 이 나라가 잘못된기지 (그때 밥 나오고 잠시 정적)</p> <p>하지만 박변도 좋은 변호사다. 검찰청장감이라는 친구였는데... 떼려치고 나와서 사서 고생하고 있잖나? 그런데 박변은 목표가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다닌다. 그래야 저쪽에서도 그렇구나 이랬든 얘기는 통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거든.</p> <p>노변은 아직 그 네때루가 없는 거구. 그레 노변은 뭐라고 얘기할 건가? 노변의 목표. 목표요? 지금은 그냥 진우 무죄니까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거지요. (생각하다 물먹해 진다)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요.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요.</p>
김광삼	(하숙) 이러면 안되지. 야아 밥 둘자

80. 룸/ 저녁

중앙지 기자들, 부산지역 신문 편집장들과 함께 술잔 돌리고 있는 강검사.

강 검사 이런 말이 있죠. 의원에는 상의 중의 하의가 있는 데 최고인 상의(上醫)는 건강을 지켜 이에 병이 발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다음인 중의(中醫)는 병이 나기 직전 병을 막는다. 가장 못난 하의(下醫)는 병이 난 뒤에야 그 병을 고친다고... 저는 하의입니다. 저는 이렇게 빨갱이들이 설치고 난 뒤에야 잡는 하의입니다. 하지만...

양복들	(집중하는)
강 검사	여러분들은 상의입니다. 건강할 때 병이 발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언론인 여러분이라 이깁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실권을 잡자마자 언론정화사업, 언론 통폐합을 하신 겁니다. 왜? 언론은 상의, 아무리 못돼도 중의니까요.
언론인1	아. 우리 강검사님 비유와 말씀이 참 멋있네. 응? 정치하셔도 되겠어.
언론인2	야 이 사람아. 정치해도 되겠다니... 하셔야지. 저런 엘리트 검사가 안하면 누가 하겠노?

하하하 좌중 즐거운 웃음과 함께 폭탄주 건배가 들고 강검사 잔 들고 일어선다.

강 검사	하의가 감히 상의, 중의께 충언 드려봤습니다. (잠시 뜸) 이번 재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언론에 몸 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역할이 있다 이깁니다. 분위기 잘 좀 만들어주세요. 자~ 원샷!
------	---

“하하하!” 웃음과 술잔이 오고가고 폭탄주 만 휴지가 날라다니고 난리인 술자리 계속된다.

-시간경과 새벽

아침 새벽에 자전거 탄 신문배달 소년이 이집 저집 가정집 안으로 신문 집어던지고 있다.

81. 신문보는 모습들/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있는 일반 가정집. 예전 진우 국밥집에서 우현과 한판 했던 전동기회장이 사는 일반 가정집이다. 전동기회장 신문을 펼치는데 부림사건 기사로 도배된 신문. 하지만, 법정에서 우현이 주장했던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대신 우현이 일어나 삿대질하며 서 있는 모습 일면 톱 사진으로 실려있다.

- 변호인 법정 소란 일삼으며 재판 방해

의아한 표정으로 신문 보는 전동기회장. 아예 그 자리에 앉아 버린다.

-CUT TO, 윤 소위의 집

같은 신문을 보고 있는 윤 소위 (법정에서 맨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

신문 보다가 뭔가 혼란스러운 듯 눈빛이 떨린다.

82. 부산지방법원 입구/ 오전

자막- 공판 3회 차.

우현 법원 정문쪽으로 들어오는데 법원 입구에 모여있던 보수시위대에서 던져진 날계란이 우현 어깨에 맞으며 터진다. “아~ 이 빨갱이 새끼야.” “북이 좋으면 북으로 가. 이 개새끼야” 하는 욕설 들려오고... 그 모습 본 취재진들 몰려든다. 평평- 사방에서 플래시 터지며 앞 다퉈 카메라 들이대는 기자들.

83. 형사법정/ 오전

사람들로 만원인 방청석. 우현은 양복 상의는 못입고 김광삼 상의를 빌려 입고 변호인단에 앉는다. 변호인단 좌석엔 박변과 우현 뿐이다. 우현 고개 숙여 인사하지만 박변은 서류만 본다.

cut to 증인석으로 걸어 나가는 차동영. 착석하더니 증인 선서를 한다.

차동영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차동영.
판사 변호인. 심문하세요.

우현 옆을 보자 박변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입술 깨물며 앞으로 나서는 우현

우현 증인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증인석에서 위증을 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주세요.
차동영 차동영. 00서 공안부 소속입니다.
우현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법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차동영 네
우현 명장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대답하지 않는 차동영. 꽉 입가에 웃음기가 떠오르더니-

차동영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잘 모르시네요.
우현
차동영 국보법위반사범들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들은 존재자체가 국가에 대한 위협입니다.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선 체포, 후 영장 청구. 현장규범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우현 지금 증거라고는 고문 통해 받아낸 진술서 밖에 없는 거지요?
검사 (벌떡 일어나며) 변호인 억지 유도심문하고 있습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변호인 경고합니다.
우현 증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 보호자에게 체포사실을 알렸습니까?

차동영 일리려고 했는데 보호자랑 연락이 잘 안된 것 같네요.

우현 증인은 파고 박진우를 체포하고 자그마치 57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구금한 사실이 있지요?

차동영 이봐요. 변호사님. 가서 국보법 공부하고 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국보법 사건은 영장 만 있으면 대공분실에서 몇 달이건 심문이 가능합니다.

우현 (지지 않고 언성 높이며) 증인은 묻는 말에나 대답하시오.

차동영 나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구금하고 심문한 적이 있을 뿐이요.

우현 국보법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당신말대로라면 내가 알리하고 표언하고 권투할 때 알리를 응원했다 침시다. 당신이 김일성이도 알리를 응원했다고 우기면 나도 국보법상 이적행위 범인으로 몰수 있어요.

검사 (벌떡 일어나며) 변호인은 법을 모독하고 북을 찬양고무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터지는 웃음

판사 변호인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해요.

우현 국보법 위반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구체적으로...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해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누가 판단하나구요?

차동영 국가가 합니다.

우현 그 국가가 뭡니까?

차동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 뭔지도 몰라요?

우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가란 국민이요. 그런데 차동영 당신이 말하는 국가란 게 대체 뭐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군인들?

검사 재판장님!

판사 서기는 기록 삭제하세요. 변호인 법정에서 말 조심하시오. 더 이상 질문없으면 검사측에 반대신문 넘기겠소.

우현, 다시 마음 다잡고-

우현 (참으며) 현재 증거라면 진술서 뿐이지요?

차동영 국시범, 사상범들이 물증을 남기겠소? 진술서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증겁니다.

우현 그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증거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고문이 있었지요?

시종일관 우현을 노려보던 차동영. 증인석의 진우로 시선을 돌린다. 날카롭게 쓰아보더니-

차동영 아닙니다.

우현	사실대로 말해요. 증인!
차동영	(딱 잘라) 절대 고문 한 적 없습니다.
우현	(판사에게)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영	내가 위증이란 증거 있소?
판사	기각합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대답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의 편파적인 진행에 분노가 솟구치는 우현. 변호인석으로 가서 사진을 가져온다.

우현	(사진 펼쳐들며) 피고 몸에서 타박상 흔적이 다수 발견했습니다. 외부의 물리적 타격에 의한 상흔, 즉 고문의 증거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없다고 잡아 땡겁니까. 증인?
차동영	그거 피고가 자해한 겁니다.
우현	!

우현 차동영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우현	헛소리 말고 진실을 얘기해라. 나는 너가 애국자 같노? 나는 애국자는 커녕 죄 없고 선량한 국가에 고문을 가해 국가를 병들게 한 비보천치고 정권의 하수인일 뿐인거다.
차동영	입닥쳐 이 빨갱이 개새끼야~
검사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혐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판사	변호인, 법정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증인에게도 예의를 지키세요.
	더 질문 없는 걸로 알고 검사측에 반대심문 넘깁니다. 검사측 반대심문하세요.

앞으로 나오는 강 검사,

강검사	증인은 고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차동영	없습니다.
강 검사	더 질문 없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인은 수 차례의 치안본부 표창을 비롯 내무부 장관 표창, 심지어 지난 경찰의 날에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 직접 옥조근 정훈장까지 받은 혼신적이며 유능한 수사관입니다. 이런 증인에게 아무 증거도 없이 일개 변호인이 떠든 말로 그에게 고문형사라는 불명예가 썩워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 우르르 빠져나가고 검찰측도 다 나간다. 냉랭한 분위기에서 우현에게 박변호사만 한마디 한다.

박변 ‘그래요. 제가 고문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다 불 줄 알았나?

- | | |
|----|--|
| 우현 | (울컥, 버럭이 합쳐져서) 박변호사님은 그럼 뭘 하셨어요? 저 창 밖 구름에 기도라도 하셨습니까? 저만 변호인단입니까? |
| 박변 | 지금 자네 혼자만 변호인인척, 혼자만 정의의 사도인척 하잖아. 자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재판이란 게 목표를 정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움직여야지. 끌린다고 다 찌르는 게 재판이야? 저쪽은 조작아든 뭐든 자필 진술서가 있어.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써있어. 그거만 가지고도 평생 감옥에 있을 수 있어. |
| 우현 | 조작 아입니까? 고문으로 강제로 |
| 박변 | (버럭) 그게 조작인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있어? 우리 다 알아. 근데 말이야.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고스트들에 돈 잊으라고 끌려나온 사람들아. 짜고 치는 고스트에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안잊고 판 접는 게 목표여야지. 형량 낮추고 피의자들 최대한 보호해주는 게 우리 목표라고... |

김광삼 변호사 말리자 박변호사 분 참으며 자리 뜯다. 김광삼 변호사만 우현의 어깨를 짚어주고 수고했다고 표정으로 얘기할 뿐이다. 우현 기분 씁쓸하다.

84. 우현의 사무실/ 오후

우현과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는데, 세무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계단으로 내려오며 압수수색 박스를 펴 나르고 있다. 우현, 사무실로 급히 올리간다. 사무장 넋 나간 표정으로 담뱃재 털 생각도 못하고 한쪽구석에서 담배만 피고 앉아 있고 공무원들 사무실안을 그야말로 이수리장으로 만들어 놨다.

- 우현 (화를 빠르게 내며) 영장 있는군?

그러자 마지막 상자를 들고나가려던 공무원이 우현에게 영장을 줬다.

- 공무원 탈세 관련된 제보가 있어세요

그러더니 바닥에 떨어져있는 이미 깨져있는 우현의 가족사진 액자. 공무원 그 위를 밟고 지나간다. 망연한 표정으로 액자를 책상위로 들어 올리고 나뒹구는 전화기를 바로 놓는 우현. 선 품자마자 전화가 바로 울린다.

- 고객 노번? 수임 계약 없었던 일로 해줘요.
우현 예?
고객 노번한테 일 맡겼다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난리 났다니까.
계약파기야. 파기. 나 노번한테 일 웃 맡겨.

끊자마자 이어서 또 걸려오는 전화. 무현 대충 감이 온다. 전화 코드 뽑아버린다.

우현 죄송합니다. 사무장님. 한 며칠 좀 쉬이소. 사무실은 내 정리할게요.
사무장 그래. 한 며칠 쉬리겠으니까. 내 쉬께. (그리곤 그냥 나가버린다)

엉망된 사무실 둘러보며 착잡한 표정의 노변. 엉망이 된 사무실 물건들 집는다. 착잡한 맴으로 정리를 시작한다.

85. 우현의 집 근처 / 밤

어둑한 밤거리, 택시에서 내려 집을 향해 가는 우현. 그때, 뒤편 어둠속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켜진다. 그리고 갑자기 급발진해서는 달리는 우현의 뒤를 위협적으로 따라온다. 여차하면 우현을 칠 기세다. 우현도 살의를 느낀다. 우현 차에 치일까봐 전력질주 마구 뛴다.

마구 뛰어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집사이 작은 골목으로 들어간다. 차는 우현 바로 뒤꽁무니까지 쫓아와 상향 헤드라이트로 우현을 비춘다. 오기가 생긴 우현 주변을 살피다 돌을 하나 들이 유리창을 깨부수려는 듯 차를 향해 다가가자 급히 후진해서 사라져버린다.

우현 (돌 집어던지지만 맞지 않자) 야 이 새끼들아. 이런다고 내가 그만둘 줄 아나? 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헉헉 절대 포기하지 않아!

86. 해운대 아파트/ 밤

들어오는 우현. 그런데 수경이 안절부절이다.

우현 (불현 불안이 확 닦친다) 와 그라노?
수경 저... 전화가 와,왔는데요.
우현 무슨 전화? 여보 정신 차려 무슨 전화?
수경 건우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담임선생님이 누군지, 몇 시에 학교 가서, 몇 시에
오는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말해버리고 끊었어예.
우현 건우 아직 안 왔나?
수경 (당장이라도 올 듯 고개 끄덕이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우현의 눈동자.

-시간경과

한밤중 초인종이 울려 수경 달려나가 문을 따자 건우가 있다. 울면서 건우를 끌어안는 수경.

수경	어디 있다 이제 왔나? 응?
건우	(웬일이자 하는 표정) 성호네서 놀다 왔는데...
수경	(건우 세게 때리며) 누구 집에 가면 간다고 얘길 해야지. 애가...

건우 수경의 손매 맞으며 우는 소리가 우현의 공망한 얼굴 위로 흐르고...

-시간경과

침대에 누워있는 우현과 수경. 수경 우현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건우와 연우를 안아 재우고 있다. 우현이나 수경이나 잠 못들기는 마찬가지. 조용히 수경이 우현에게 물기 묻은 목소리로 딱 한문장 말한다.

수경	여보... 그 재판 그만두면 안될니까?
----	-----------------------

우현 대답도 뭐도... 아웃 소리 없이 눈을 감을 뿐이다.

87. 신문 인서트/ 새벽

-인서트1

아직은 어둑한 밤거리. 신문을 실은 트럭들이 각 신문보급소에 신문을 내려놓고 신문 배급소는 신문 배달부에게 신문을 나눠준다. 신문은 집집마다 배달되고...

-인서트2

커피 마시며 신문 보던 강검사 빙긋이 웃으며 한마디 한다.

강검사	안기부가 한건 했네.
-----	-------------

보면 신문 헤드라인 '부림사건 노우현 변호사 장인, 625 양민 확실한 인민위원으로 밝혀져.'

-인서트3

아침식탁에서 신문 펼치던 김광삼, 숟가락 놓고 벌떡 일어난다.

88. 광안리 선착장/ 아침

먹구름 가득한 바닷가. 해운대 오트 선착장에 김광심이 도착한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우현의 경기용 요트를 찾아낸다. 바닥에 뭉구는 소주병들.

김광삼 여기 있을 줄 알았데. 수경씨한테 이야기 들었다. 신문 보자 마자 뛰어나왔대매.
(신발 건네며) 신발도 안신고 말이다.

우현 (발을 꼬여서) 지금은 취해가 뱃놀이 못 시켜드립니다.

김광삼은 바로 내려가 우현 옆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우현 옆에 예의 그 00일보가 펼쳐져있다. ‘부림사건 노우현 변호사 장인, 양민 학살한 인민 위원으로 밝혀져.’ 1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온다.

김광삼 신발이나 신어라. (그러더니 우현의 발을 들어 한발 한발 신겨준다)

잠시 그렇게 있던 우현과 광일, 둘 위로 ‘후두둑 후두둑’ 빗물 떨어진다. 얼굴에 빗방울 떨어지자 눈을 뜨는 우현, 비를거리며 일어난다. 그러더니 바다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아~~아~~~악” 하며 짐승처럼 포효하고는 폭 주저앉는다.

김광삼 (우현의 과로움이 너무 이해된다) 유변은 그만 둔다고 연락왔다. 내 잘있겠다고 120% 이해한다 캤다. 노변. 미안하다. 내 그때 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우현 우리 장인이요. 벙어리였습니다. 아시지요. 벙어리 삼룡이. 그 소설 맨처로 머슴 살다가 왠장 하나 주기에 받았더랍니다. 그 뿐입니다. (차분해지며) 저 미누라는 이찌 있습니까?

김광삼 어떻겠노?

우현 (비 훌딱 맞은 채로 일어서며) 저는 이만 가볼게요.

89. 해운대 아파트/ 아침

문 열고 들어오는 우현. 커튼도 쳐져있고 집안이 어둡다. 우현 불키려 벽을 더듬는데 어둠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수경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불 키자 마이소.

우현 불 키려던 손을 멈춘다.

우현 미안하다.

수경 내가 미안하지. 당신이 왜 미안합니까.

우현 아니. 내가 미안하다. 내 신문보고 뛰어나갈때만 해도 다 때려칠리겠다. 그런데...
이라면 안되는 거잖니. 진우한테도 그러면 안되는 거고. 나나 당신한테도 그러면 안되는

거잖니. 내가 여기서 떼려 치면 계속 이럴 거 아니니... 여보, 내 포기할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수검야.

어둠속의 우현, 어깨가 들썩이고 우현에 안긴 수경도 그렇다.

90. 우현의 사무실 / 오전

우현 혼자 정리한 사무실. 깨지고 부서진 비품들은 박스에 담겨 구석에 놓여있고... 해서 사무실이 한결 훈ording그려하다. 그 사무실로 사무장이 들어온다.

사무장 (사무실 둘러보더니) 며칠 쉬리카더니 다음날 바로 불러내나? (맘에 없는 소리하고 미안해서) 내.. 내일쯤 와서 치울리겠더니 혼자 다 치운기가?
우현 형님 저 좀 도와주이소.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나라 좀 도와주세요.

91. 경남 군부대 인근 다방/ 정오무렵

상대적으로 군인들이 많은 전형적인 군부대 앞 다방. 원사 계급의 중년 남자 들어온다. 사무장 발견하더니 손 들어 인사한다.

92. 거리 / 오후

우현 길을 걷다 시장 골목길로 훅 들어간다. 누군가도 그 시장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우현이 없자 당황하며 살핀다. 미행이 붙어있었던 거.

93. 헌책방 안/ 오후

우현과 광삼이 헌책방 안쪽에서 얘기중

우현 험님 내일 오전 외신 기자들하고 제대로 된 기자들 모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광삼 ?

우현 윤성두 소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을 뒤엎을 증인은 윤성두 그 군의관뿐입니다.

김광삼 찾아도 그 사람이 증언해준다는 보장 있나? 그 사람이 한다고 나서도 증인 체택 거부될 거야.

우현 그래십니다. 기자들은 내일 법정에만 오면 됩니다. 증인 체택 불발시 저 기자들한테 양심선언하겠다고 하려구요. 그래서 외신기자들은 필습니다.

김광삼 윤 소위라는 그 사람, 증언...하겠어?

우현 저랑 같은 꺽니다.

김광삼 ?

우현 제 눈으로 봐야만 세상의 어둠에 몸 서리치는 인간... 행동에 옮겨줄 지는 희망뿐입니 다만... 지금은 희망밖에 가진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김광삼 우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많이 변해버린 우현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 끄덕이고 사라진다

94. 우현의 사무실 입구/ 오후

장맛비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고 우현, 비닐 우산 하나를 뒤집어 쓰고 사무실 있는 건물안으로 들어간다. 올라가는데 역시 미행이 붙은 듯 하다. 우현 계단 복도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문 뒤에 몸을 숨긴다. 아니나 다를까 군인복장의 한 남자가 조심스레 우현 뒤를 밟아 따라오고 있다. 군인 뒤를 보이고 계속 올라가자 우현 덮친다.

우현 누구야? 이 새끼들. 내가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아?

우현 소리 꽉 지르며 달려들어 등을 후려치자 뿌리치는 군인. 계단밑으로 도망치는 걸 우현 몸을 날려 그 군인 몸 위로 떨어진다. 군대 판쵸 우비를 입고 쓰러진 그 군인의 얼굴이 뜻밖이다.

우현 (놀란) 당신, 윤성두? 윤성두 소위?

95. 우현의 사무실 / 오후

우현 맑은 편 소파에 앉아 우현과 마주보고 앉아있는 윤소위. 우현 윤소위에게 커피 타와 앞에 내놓는다. 그때 전화벨 울리고 우현 받는다. 사무장이다.

Insert. 비맞으며 어느 군부대앞 공중전화 박스안에 들이가 있는 사무장

사무장 윤성두 소위 양산 쪽에 있는 태풍부대 군의관인데... 휴가제 내고 휴가 나갔대네.
 집은 서울이란다. 우쭐까?
우현 (V.O) 지금 여 와있습니다.
사무장 영?

cut to 사무실

윤 소위 (눈빛 혼들리다가 우현과 눈 마주치며) 증언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 (희망을 봤다)

96. 판사집앞 / 이른 아침

판사, 차를 집주차장에서 몰고 나오는데 앞을 누가 가로막는다. 보면 우현이다. 판사 노려보는데 우현이 서류봉투 하나를 훔들며 다가온다. 판사 차창문 내리는데...

우현 윤성두 소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기가 막히다) 참... 이봐 노번. 오늘이 공판 마지막날이야. 볼 것도 없이 기각이야.
 비켜주게 (차창문 올리려는데...)
우현 (차창문 못 올리게 얼굴 들이밀며) 증인은 고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당시자입니다.
판사 이봐! 자네! 보청기 사서 끼여되겠어. 기각이라고! 사전 협의되지도 않은 증인에다
 당일날... 법원도 아니고 판사 집앞에 와서 증인 신청을 해? 기각! 기각! 기각!이라고.
우현 그럼 이석주 부장판사께서 증인신청 제택을 기각해서 어쩔 수 없이 양심선언하는 거라
 고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마이너치하고 AP 통신인가 하고 독일 뮤 ZDF 기자들도 관심이
 많다고 와있다 카네요. 저는 그럼 기자회견하러 가겠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했십니다!
 (기다가 들어서며) 참... '이 증언을 막는다는 건 이 재판이 짜여진 각본에 따른 요식
 행위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라고 전 번호인 입장에서 기자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판사 (우현 뚜벅뚜벅 걸어가버리자 표정,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외친다) 이봐! 노번

97. 부산지방법원/ 오전

자막- 공판 마지막날

재판장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기자들도 잔뜩 와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여유롭게 앉아있던 차동영. 순간, 뭔가를 봤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라이방 선글라스를 벗고 재차 확인하는데. 얼굴에 당혹

감이 역력하다. 윤 소위가 변호인단 뒤 방청석 맨 앞에 앉아있는 것. 차동영 원가 이상하다며 강검사에게 귀엣말로 전하는데... 우현 일어서서 판사에게 발언한다.

우현	윤성두 소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강검사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말자른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우현	증인은 고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당사자로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을 가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판사	(우현을 매우 못미땅한 표정으로 노려보다가 방청석 살피는데 진짜 외신 기자들이 꽤 보인다. 고개 살짝 돌려 강검사 바리보며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 짓고는) 번호인 증인 신청... 받아들입니다.

강 검사 얼굴, 굳어지는 차동영을 부른다.

강검사 (나직이) 안기부니 보안사니 다 연락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저 윤 소위라는 놈 잡아 넣으라고 전해요. 이 재판 망가지면 내 책임 아니고 그쪽 책임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구요.

차동영은 급히 밖으로 나간다. 그들의 당황하는 표정 자켜보던 우현.

-시간경과

우현이 윤 소위 앞을 걸어 나온다.

우현	증인의 이름과 현재 직업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 소위	이름 윤성두. 육군 태풍부대 군의관으로 복무 중입니다.
우현	육군 군의관이 왜 형사들과 같이 일을 합니까?
윤 소위	대공수사 업무에 차출되었습니다.
우현	그 대공수사업무에 차출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윤 소위	대공수사증인 대공분실로 출근해서 대공수사업무를 돋는 겁니다.
우현	그 대공분실에서 증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윤 소위	긴급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우현	방금 응급처치를 했다고 말했습니까?
윤 소위	... 네
우현	취조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 즉 고문이 있었다는 겁니까?
강 검사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금 번호인은 유도...

말을 끊는 운 소위. 마음을 다잡듯 우현을 똑바로 보더니-

윤 소위 네. 고문이 있었습니다.
우현 그렇다면 피고가 고문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윤 소위 예.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우현 고문은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윤 소위 차동영 경감과 그 휘하 형사들이 이번 부림사건 피의자들에게 했습니다.

웅성거리는 방청객들, 플래시 터지고 기자들도 바빠진다.

우현 그 고문 방법은 무엇 무엇이였습니까?
윤 소위 구타, 물고문, 통닭구이...
우현 통닭구이요? 통닭구이란 게 대체 뭘니까? 통닭구이 잔뜩 사다 물도 없이 먹이는 겁니까

방청객들 일부 웃는데, 강검사 일어난다.

강검사 지금 변호인은 말도 안되는 선동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변호인 본질만 얘기하세요.
우현 대체 어떤 고문 방법과 어느 정도의 강도였길래 피의자들이 조작에 응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양복 벗고 나와서 윤 소위에게) 나에게 한번 해보소. (나직이) 빨리.

윤 소위 나와서 우현에게 통닭구이를 시연한다. 우현 침으려고 하지만 통증으로 비명이 새어나온다. 아아-

강검사 당장 중지시켜. 지금 변호인은 이 신성한 재판정을 쇼로 만들고 있습니다.
판사 그만두세요. (일어나서 판사봉 두드리며) 변호인 당장 그만두시오.

법원 청경들 뛰어나와 우현을 제지한다. 통닭구이에서 풀린 우현 질뚝거리며 일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눈빛과 결기만은 살아있다.

우현 증인이 있고 명백한 상황이 있고 여기 진실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된 인권 유린 사건이자 국보법 사건이 아닌 겁니다.

소란한 상황속에서 차동영 강검사에게 다가와 캇속말로 뭐라뭐라 한다. 강검사 눈썹 올리며 “그랬어?” 하는 표정. 고개 끄덕이더니

강검사 (벌떡 일어나) 재판장님 이런 상황에서 재판 진행 못합니다. 휴정 신청합니다.
판사 (판사봉 두드리며) 받아들입니다. 두시간 휴정합니다. 아울러 변호인 노우현에겐 법정 소란죄로 벌금형 선고합니다. (다시 판사봉 두드리고 나간다)

우현 번호인 단식으로 돌아가자 박변도 놀라고 벙찐 표정

박변 우리도 좀 알려주고 그래. 사람 너무 놀래키지 말고
 우현 죄송합니다. 너무 급히 만나서... 죄송합니다.

박변 아니야. 잘했어. (주먹 쥐어 보이며) 잘했어. 정말. 해보자구.
 우현 예. (김광삼 돌아보자 김광삼도 엄자를 치켜올려준다)

김광삼 옆의 이홍록 변호사도 잘한다는 격려의 포즈 보여준다

화기애애한(?) 번호인단 모습을 비릿한 표정으로 노려보는 강검사. 옆의 차동영에게 하마디 한다.

강검사 확실한거지? 아니면 우리 개망신에... 페가 망신이야.
차동영 확실합니다. 확실안하더라도 확실하게 만들면 되지요.
강검사 오케이. 시간 끌지 말고 오후 재판 개시되면 열어야 돼

자막- 공판 마지막 날 오후 공판

우현	증인은 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서 내용이 뭡니까?
윤 소위	내공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우현	양심선언에 대한 피해가 증인 본인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증언하는 겁니까?
윤 소위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 그렇습니다.

강검사 차동영에게 원기를 듣고 메모 하나를 넘겨받는다. 메모를 받은 강검사 씨의 미소지느다.

강검사 일어나서 나온다

강 검사	(대뜸) 공판 마지막 날에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뭘니까?
윤 소위	네?
강 검사	변호인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박변	검사는 지금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린 그런 돈 없습니다.
방청석	(하!하!하!)
판사	검사는 충족발언 자제하세요.

우현과 박변 눈 마주친다. 박변 '왜? 나도 원래 절해' 하는 표정. 우현 슬쩍 웃어보인다.

강 검사, 들고 있는 종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 강 검사 증인. 증인 현재 육군 의무장교로 복무하고 있지요?
- 윤 소위 네. 그렇습니다.
- 강 검사 지금 증인 부대에서 이 법정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왔습니까?
- 윤 소위 (대답을 머뭇거리다) 휴가 중입니다.
- 강 검사 휴가라... 증인은 휴가를 본인 맘대로 지멋대로 갑니까? 증인 6일전부터 영외외출을 한 뒤 현재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줄까요? 증인 지금 탈영 중입니다.
- 윤 소위 (당황하지만)
- 우현 검찰측은 본 재판과 상관없는 사실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 윤 소위 분명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 강 검사 (비웃듯) 전화로요? 이봐 윤 소위! 군대가 직장이야? 재판장님. 지금 밖에는 재판이 끝나면 증인을 체포하기 위해 현병대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 윤 소위 (얼굴 점점 굳어지는)
- 강 검사 번호인은 윤 소위가 재판의 핵심쟁점을 가리는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이 신뢰할만한 수준인지 판별해야 합니다. 한데 증인은 지금 탈영병입니다. 탈영병이 공판 마지막 날 갑자기 등장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불안한 증인의 말을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게 저희 검찰의 입장입니다.
- 우현 6일전부터 무단 영외외출이라면 첫공판일입니다. 증인은 공판을 보고 그 가증스러운 위증에 충격을 받아 고민해오다가 지금 힘든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측이 증인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서 증인의 양심선언을 무효화 시도하는 것입니다.
- 강 검사 (몰아붙이듯) 어떠한 미시여구로 포장을 해도 증인은 탈영병입니다. 탈영병이 자신의 죄를 양심선언이니 어찌나 하며 물을 타는 겁니다.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 판사 (고개 끄덕이며) 서기는 증인의 진술을 모두 삭제해...
- 우현 (판사 말을 자르며 큰 소리로) 윤 소위가 보관해온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강 검사, 차동영, 순애, 김광삼 등등... 모두의 시선이 우현에게 쏠린다.

가방에서 원가 꺼내 들어 보이는 우현. 뚜벅뚜벅 판사석으로 걸어가 작은 비닐봉투를 올려놓는 우현.

판사, 비닐 봉투를 들어 보다가 놀라서 던지듯 떨어뜨린다.

우현 기억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현 판사석에서 비닐에 담겨있던 증거물을 집어 들어올린다. 진우의 엄지발톱이다. 방청객들 술렁인다.

우현 이 증거물은 고문과정에서 뽑힌 피고의 엄지발톱입니다. 차동영 경감은 증인에게 뽑힌 발톱을 치료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작중을 한번 둘러보더니-

우현	죄책감입니다. 증인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놓아주지 않는 죄책감. 피고의 뽑혀져 나간 발톱과 함께 이 재판의 또 다른 증거물입니다.
검사	저 발톱이 법적인 증거능력이 있는지 검증과정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현	(버럭) 증거능력이요? 검증과정이요? 여기서 당장 해드리죠.

우현, 피고석으로 가더니 진우의 발을 걷어 부친다. 엄지발톱이 완전히 빠져서 살이 시커멓게 죽어있다. 비닐봉투의 왼쪽 발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현. 그러는 사이 차동영이 강검사에게 다가간다.

검사 (차동영에게 뭔가 듣더니) 저 엄지발톱은 피고가 맨발로 책상을 차다가 발생한 사고였답니다. 저 발톱이에말로 조작된 증거입니다. 절대 고문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운현 이 놈들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우현 검사와 차동영에게 뛰어들려하자 박변과 김광삼이 막는다.

파사 1시간 휴정하겠습니다. 양측 최후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딱- 파격복 두드리면

98. 혐의자 대기실 / 정오무렵

접견실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순애가 돼지국밥을 한상 차려왔다.
말없이 국밥을 입안으로 밀어만 넣고 있던 진우. 모자 사이는 아무 말이 없다.
진우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지만 고개를 들지 못한다. 울컥- 솟아오르는 슬픔을 힘겹게 누르는 순애.

순애 (화난 목소리로) 고개 안 드나?
진우 (눈물 그렁그렁해지는)

어금니 꽉 깨무는 순애의 표정이 단호하다. 눈물을 꼭 참는다.

순애 (눈물을 꾹 참으며) 진우 나는 죄인이 이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리가... 내 아들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기다.

진우 ... 어무이.

순에 그러니까 고개 들어라.

진우, 고개 들면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진다. 야윈 두 뺨으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린다.

대기실 구석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우현의 눈가에도 뭔가 맹하려 하지만 우현 어금니를 꽉 깨물며 참는다.

99. 형사법정 / 오후

최후변론을 위해 재판정에 들어서는 우현, 방청객들 사이에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수가 걸음을 멈춘는 술집에서 명살잡이를 했던 동기회장이 많아있다.

동기화작 (고악했던 인상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더니,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윤현 (고개 끄덕이며 꼴 이야기겠다고 답하는 듯한 표정)

우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시가결과

판사 **검사** **최후지술하세요**

각 건사가 앞으로 나와 최후벼론을 시작하다

각 경찰서는 여기 밤천개들 가운데 불법시가으로 피해 입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소을 듣지 않는다. 각 검사가 원하던 대답이 들판에 퍼져나온다.

강 검사 국가보안법사건들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정적으로 피고인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다음 멘트를 강조하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는

강 검사 (협주어) 국가가 사라지면 국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월남이 단 적이 예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떠든다고 평화와 안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피고 박진우 처럼 평화를 위협하고, 체제를 흔드는 적은 주변 어디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에게 우리는 결코 좌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판결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강 검사가 말을 마치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박수.

판사 번호인 측 최후진술해주세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우현. 그런데 박변이 우현을 일으켜 세운다.

박변 노변이 해야지. (그리고 이지 아니라는 뜻으로 미소지어준다)

우현 일어난다. 그리고 방청석을 한차례 둘러보더니-

우현 피고는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시민입니다. 어느 날 밤 이유도 없이 체포됐고 외부와 혈지하 차단된 감옥에 57일 동안 갇혔습니다. 잠혹한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고문은 허위자백으로 이어졌고, 허위자백은 형사처벌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현, 진우를 한번 보더니-

우현 증인도, 증거도, 알리바이도,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만이 증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라는 사이 법은 누더기가 되고, 원망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범치주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침착하지만 점점 고조되는 말투-

우현 재판기간동안 검찰측은 거짓 자술서 말고는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명분으로 피고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권력에 정의가 없다면 그 권력이 거대한 강도 집단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방청석에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우현 힘 있는 자들이 법을 맘대로 주무르고, 국민을 붙잡아 때리고, 겁줘서 입 닫게 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그 힘에 밀려 저 죄 없는 피의자를 죄인으로 만든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 유죄입니다.
재판장님. 법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 땅에 정의를 세우려 희생한 수많은 목숨들을 생각하시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경과

잠시후 판사가 판결문을 꺼내들자 법정이 조용해진다. 초조한 표정의 우현.

판사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을 두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강요된 자백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수사관들이 법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범죄행위 역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재판부는 반공법 제 4조 제 1항,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2항 계엄포고문 제 10호 제 2의 가항에 따라 피고 박진우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봉을 때린다. 요동치는 재판장. 청중석에서 욕설과 애유가 터진다.

박수를 치는 몇몇의 방청객도 보인다.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가려는 판사 및 재판부 차동영과 강 검사는 서로 악수를 나누며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나가려 한다.

잠시 우현은 불박인 듯 그 자리에 서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의 눈에 포박당해 재판장 밖으로 끌려 나가는 진우가 보인다. 순애의 절규가 방청객들의 애유소리에 섞여 들린다.

우현

(목이 터져라)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이 어딨습니까! 피해자의 말이 거짓이 되고,加害자의 말이 진실이 돼 버린 이 따위 재판은 무릅니다!

뛰어나가려는 우현을 박변과 김광삼, 이홍록 변호사등이 잡아 말린다.

100. 광안리 선착장/ 밤

사람들 모여 컬러 텔레비로 올림픽 유치 실황중계를 보고 있다. 사마란치가 봉투를 열더니 딱 한마디 한다.

“**◀▶울**”

“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아나운서 멘트가 위로 깔린다.

(아나운서) 이겼습니다. 서울이 이겼습니다. 세계가 놀란 대이번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나고야와 벌였던 1998년 제 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서울 하늘에 뜨거운 오륜 성화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주영 준비 위원장은 유치소감으로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영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그런데 정작 선착장에선 땅위로 요트를 끌어올리고 있는 우현이다.

김광삼 변호사가 그런 우현에게 다가온다.

김광삼	어디로 옮기나?
우현	팔았습니다.
김광삼	팔아? 이기 있어야 국가대표...
우현	이제 다른 거로 국가대표 하려구요. 변호인이면 변호인으로 국가 대표를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화면, 천천히 어두워진다.

101. 부산시내/ 오후

자막- 1987년 6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D-365 기념행사로 분주한 부산시내. 각종 전단지와 플랜카드로 뒤덮여 축제분위기 같다. 하지만, 모퉁이 돌아 남포동 부산극장 앞으로 가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박종철 추도집회’ 머리끈을 들려맨 시위대가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위대 위로 최루탄 평평 터진다.

전투경찰 진영.

신병 티가 짙은 전경들에게 고참이 진압요령을 일러주고 있는데... 더 높은 고참이 와서 아는 체 한다

선임	아그들아
후임들	(보는)
선임	저기 저 한 놈은 건드리지 마라.
후임	누구 말입니까?
선임	(손가락으로 최루탄 가스 뿐만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가리키며) 저기 저기. 독종도 저런 독종이 없대이. 더군다나 점마 변호사라 잘못 건들면 소송간다. 만다. 시끄러워진 데이. 알았제~
후임	(얼굴에 물음표 떠오르는) 네? 근데 변호사가 뭣 하려?
선임	모르지... 궁금하면 가서 너 물어보든지. 아 점마 또 떠드네.

선임의 눈초리 끝에 우현(42)이 보인다. 우현 확성기를 들고 있다.

더욱 더 날카롭고 단단해지고 형형한 눈빛.

백골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대를 습격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중이고 전경들도 그 뒤를 따라 습격을 준비중이다.

우현	(확성기를 들고) 동지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악도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저런 폭력 따위에 놀려 포기하진 맙시다.
----	---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동트기 직전이 가장 아득운 법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상대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졌더라도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현의 확성기 격려 속에 시위대도 전열을 재정비한다.

다다다다다 소위 지랄탄이라 불리는 최루탄 둥탱이가 시위대 위에서 터진다. 지랄탄 중 하나가 우현의 머리 위에서 터진다. 그래도 우현은 정면으로 서서 끊임없이 외친다.

터지는 지랄탄에 시위대 움찔하며 대열 흩어지자 백골단들 뛰어와 사람들 폐기 시작하고

하얀 가루 흘날리고 중간 중간 쇠파이프 휘둘러지고 백골단 앞에 화염병 터지고 시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화염병과 돌이 날아다니며 시위가 격해지지만 노우현은 정면으로 서서 끊임없이 외친다.

우현

시민 동지 여러분!!

102. 우현의 사무실/ 오후

-인서트

건물 입구. 하얀 최루탄 가루 뒤집어쓴 우현이 무체통을 뒤지고 있다.

우편물 대부분은 대출상환통지서다.

최루탄을 뒤집어써 끌이 말이 아닌 우현을 보는 사무장. 별로 놀리지도 않는다.

일상인 듯, 기계적으로 수건에 물을 묻혀 건넨다. 우현 씩 웃으며 수건 받아 닦는다.

그때, 울리는 전화벨. 수화기 드는 우현.

(수겸) 건우 아버지. 짐 다 쌌어에. 얼른 오아소.

103. 해운대 아파트/ 오후

-인서트, 아파트 입구

트럭 두 대의 화물칸이 짐으로 빵빵하다.

우현이 복잡한 심경으로 집안을 들러보고 있다. 거실 한 구석에서 걸음 멈추는 벽지 들판자 시멘트벽에 새겨진 글귀가 보인다.

포기하지마라. 절대로 포기하지마라

수많은 상념들이 스친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발을 신고 집안에 성큼성큼 들어서는 남자들.

우현 ?

우현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팔을 꺾더니 철컥 채워지는 수갑.

형사 (체포영장 내보이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짐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104. 부산구치소 접견실/ 오후

하얀 사복 수의를 입고 조그마한 창으로 들어오는 헛별을 조명삼아 책을 읽고 있는 노우현. 짧게 자란 수염이 턱밑을 덮고 있지만 이제 깊어진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보여준다.

구치소 북도쪽으로 교도관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 들리고 교도관 교도방 앞에 와서 외친다.

교도관 33번 노우현, 접견

우현, 읽던 책에 갈피를 하고 책을 덮고 일어선다.

105. 부산구치소 접견실/ 오후

접견실에 도착하자 접견실 테이블에 앉아있는 김광삼(49) 변호사, 우현 들어오자 일어나 맞이한다.

수의를 입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우현의 모습이 감회가 새로운지 벅찬 표정

김광삼 (인사말을 찾는 듯 잠시 정적) 고생이 많네.

우현 (마음 열고 환히 웃는 그런 표정으로) 고생은요. 밖에서 뒷바라지 하는 선배님이 고생이죠. 저는 꼽밥 먹으며 편안하게 있다 아입니까?

김광삼 노변... 내일이 첫 공판 아이가?

우현 (보는)

김광삼 네 말고 변호사 몇 분이 노변 변론하고 싶다고 변호인단 신청했다.

우현 (별 신경 안쓰 듯) 그래요? 고맙네요.

106.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정/ 오후

우현이 재판정에 들어선다. 빈자리 하나 없이 청중들로 가득한 방청석. 우현의 눈에는 아내 수경이 우선 보

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7년이 지나 훌쩍 자라난 건우와 연우도 우현을 쳐다보고 손을 흔든다. 일부러라도 ‘나는 괜찮다’는 듯 미소 보이는 우현.

변호인석에는 김광삼과 이상록, 문재호 변호사 셋이 앉아있다.

박병호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우현에게 눈인사와 짧은 고개 인사 건넨다. 우현은 재판 봐주려 왔나보다 싶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곤 자리에 앉는다. 판사가 들어온다.

판사에게 의례를 표하고 앉는 통상적 재판 시작 절차가 진행되고 판사 재판을 시작한다.

판사 2 **검사측은 기소장 낭독해주세요.**

검사 **피고 노우현은 박종철군 충도집회 등 다수의 불법 집회와 시위를 기획,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하였으며 사용자나 고용인이 아님에도 삼우 조선 노동쟁의 및 농성 시위에 개입하여 노동쟁의 제 3자 개입 금지 법률 등을 위반 해온 바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판사 2 **변호인측 변론 하세요.**

김광삼 **(일어서며) 재판장님. 본 재판에 앞서 변론을 신청한 변호사가 많아 방청석에도 다수 앉아 있는 등 변호인의 출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인 출석 확인을 위하여 재판장님께 변호인을 호명, 그 출석여부를 확인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판사 2 **(변호인 명부를 들여다본다. 보다가 노안이 있는지 들키기 안경을 꺼내 명부를 다시 본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표정으로 김광삼 변호사를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명부를 가리킨다) 이게 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눈 감고 앉아있는 노우현을 가리킨다)**

김광삼 **(고개 끄덕이며 이제 으쓱해보인다) 예. 그래서 호명, 확인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우현은 눈을 감고 재판에만 집중하려는 듯 여전히 기만히 앉아있다.

판사는 난감한 표정이다가... 결국 변호인단 명부를 든다.

판사 2 **(호명하려다가 뭐가 걸리는지 물 한잔 마시고는) 그럼 호명합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광삼 **(일어선 채) 예!**

판사 2 **문재호 변호사.**

문재호 **(일어나며) 예. (그리고 앉지 않고 서 있다)**

판사 2 **이상록 변호사**

이상록 **예 (역시 서 있다)**

판사 2 **(작게 한숨 내쉬곤 방청석 쳐다보며 양해구하듯) 이하 변호사 호칭은 빼겠소. 박병호**

끼익 의자 끌리는 소리 들리고 곧이어 “예!” 하는 소리와 함께 박병호 변호사 일어난다. 판사는 계속해서 최재원, 이준동 등의 변호사 이름을 호명하고 그때마다 의자 끌리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씩 일어나서 “예!” 하고 대답한다.

눈 감고 있던 우현은 이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 불리워지자 원가 이상해 눈을 뜬다. 그려는 와중에도 호명된 변호인들은 판사의 호명에 일어나 대답하고 그대로 서있다.

눈을 뜬 우현 뒤를 돌아다본다. 어느 덧 방청석까지 근 20여명이 기립해있다. 판사는 계속 이름을 부르고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 “예!” 하는 대답과 함께 계속 일어선다.

평정을 유지하고 있던 우현의 얼굴에 동요가 안다. “예!” 하는 대답과 함께 방청석의 의자 밀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린다. 고개돌리고 지켜보던 우현의 입가엔... 미소가, 우현의 눈가엔... 붉은기운이 점점 짙어진다.

그럼에도 판사의 호명과 변호인들의 대답과 기립은 멈추지 않는다.

“차승재”, “예~”, “최창호”, “옙”...

일어난 사람 모두 우현을 변론해주기 위해 변호인단에 이름을 넣은 99명의 변호사들이다.

그 변호사중엔 초반에 우현을 잘 모르면서도 뒷담화해대던 부산 변협 맴버들도 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온 엔딩씬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앉으라!”고 외치고 있고... 여기에선 판사가 변호인의 이름을 외친다는 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선 키팅을 보내는 학생들이 “오 캡틴 마이 캡틴”을 부르며 책상위로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예~”라는 대답과 함께 변호인들이 하나씩 기립해서 서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똑같은 건...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는 학생들이나 “예~”하고 대답하며 일어서는 변호사들의 얼굴 표정엔 자부심과 당당함이깃들여 있다는 점이다.

이제 제대로 미소짓는 입가와... 제대로 눈울자은 눈가를 하고... 우현 다시 앞을 바라본다.

우현의 표정에 클로즈 업 되면서 영화 엔딩 타이틀 올라간다.

우현의 등 뒤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대답과 함께 일어서고 있다.

감사합니다.

본 시나리오는 실제 있었던 인물과 사건에서 그 모티브를 구하였으며 상당부분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기
도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허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